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8월 1일(음력 6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639 호

"풀 베고…책 읽고…명상하며 더위와 더불어 살지요"

名士의 여름나기 -<1>

나는 더위를 피하려 하지 않고 더위와 더불어 산다. 차밭에 잡풀이 자라면 아침에 예초기로 자른다. 마당의 잔디와 언덕의 풀, 연못 가장자리의 풀도 깎는다.

서재에서 반라(半裸)의 몸이 된 채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한다. 아침에는 자연 바람 속에서 살고, 섭씨 30도 전후의 한낮이 되면, 세수를 하고 물수건을 등에 얹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기도 하고, 냉방을 하기도 한다.

책 속, 글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서재에서 지치면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으로 나갈 때는 날파리나 풀모기를 쫓기 위하여 부채를 들고 나간다. 내 부채 한 쪽 면에는, 서툰 먹 글씨로 '无心(무심)'이라고 쓰고 다른 한 편에는 '狂氣(광기)'라고 써 놓았다. 무심은 하늘의 마음 가지기이고 광기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미쳐버리자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이루 수 없다. 미쳐버려야 하는 것이다.

'無(무)'자는 '섶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태우니 없어져버린다'는 '없음'이지만, '无(무)'자는 '하늘 天'자를 닮은 글자로서, 하늘의 텅 비어 있음과 같은 '없음'과 우주의 시원을 뜻하는 없음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절의 '극락전'을 '无量壽閣(무량수각)'이라고 썼다. '무량수'는 영원의 시간을 뜻한다.

내가 '무심(无心)'을 부채에 쓴 것은, 부처님의 마음, 텅 빈 하늘의 마음, 영원의 시간, 우주 시원의 마음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아니,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사실은 깨달음을 통해 거듭나고 싶은 것이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마음은 무심이다. 무심은 현실을 잊어버린다. 초월해버린다.

잔디 위와 늙은 감나무 잎사귀들에는 금빛 화살 같은 햇살이 작열한다. 감나무 그늘 속에 허름한 나무 평상 하나가 놓여 있다. 평상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놈의 등허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웃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바다를 건너고 들판을 휘질러온 푸른 바람과 푸른 그늘로 목욕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목욕을 즐기면서 처마 끝의 풍경소리를 듣는다. 바람은 풍경에 달려 있는 양철 물고기를 희롱하고, 물고기는 몸부림치듯 풍경을 흔들어대고 풍경은 자지러지는 소리를 낸다.

감나무와 호두나무에서는 매미들이 운다. 합창이다. 그것은 나를 스쳐 지나간 옛사랑 같은 이명(耳鳴)이다. 뒷산에서는 뻐꾹새 소리, 꿩꿩 푸드득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 소리들은 서재 속에서 생긴 나의 우울을 치유하는 신약이다.

연못에서는 수련 꽃송이들이 작열하는 해를 즐긴다. 한여름에 그놈들은 한 시쯤부터 졸기 시작하여 네 시쯤이면 꽃잎을 모두 닫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이튿날 아침 7시부터 천천히 그 꽃잎들을 벌린다.

연못의 물속에서는 비단잉어 금붕어들이 순항하기도 하고, 이끼를 열심히 뜯어먹기도 한다. 그놈들은 움직이는 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인데, 안양(安壤-良)은 극락의 딴이름이다.

내 평상 자랑을 좀 해야겠다.

평상, 감나무의 그늘 아래 앉은 채 거무튀튀하게 늙어가면서도, 자기 등허리가 토굴 주인 늙은이가 명상하는 자리라고 자부하는 이놈은, 주인 늙은이가 남은 목숨을 도깨비 한데 저당 잡히고, 모두 사버린, 오른쪽 구유산 모퉁이와 왼쪽 뱀산 끄트머리 발로 구획 지어 잘라낸 연꽃 바다와 섬들과 하늘을 꼼꼼하게 살펴 두었다가, 서재에서 돋보기 너머로 책을 쓰다가 쉬러 나온 주인 늙은이에게 시시콜콜 보고한다.

'당신이 서재에 계시는 동안 저 건너 바다에서 달려와 당신의 모래밭에서 부서진 파도는 팔백 사천 팔만 개, 심연에서 꼬물거린 키조개와 피고막과 새조개와 갯벌에 기어다닌 송장게 칠게 도둑게들이 팔만 사천구만 마리, 뛰어다닌 망둥어와 수면으로 뛰어올라 햇빛을 찬양하며 퍼덕거린 숭어와 농어와 도미 전어 멸치 들이 팔천 억겁 마리, 바지락 캐는 아낙 고막 잡는 아낙들이 쉰 다섯 사람, 정치망에서 고기잡이 하고, 통발로 낙지잡이 하는 어부들이 삼십 명, 그물 깁고 있는 어부가 세 사람, 지나간 고깃배가 세 척, 청둥오리 2백 마리, 해오라기 스무 마리, 먹황새 열 마리, 검은댕기 무루미 다섯 마리 물떼새 스무 마리, 갈매기 백 열 두 마리… 그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당신의 하늘과 바다 사용료, 오늘도 모두 외상입니다.'

주인 늙은이인 나는 '그래그래 알았다' 하며 고개 끄덕거리고 '부지런히 사용하되 더럽히지만 말라고 해라' 하고 명령하며 텅 빈 하늘을 쳐다본다. 흰 구름 한 장 흘러간다.

그래 그렇다. 나의 여름은 저 구름처럼 유유히 잘 흘러간다.



소설가 한승원

선종법통 새로 정립 도의국사 비문 확정

조계종조 도의 국사 수법기념비 초안이 확정됐다.

조계종조 도의 국사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는 7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기념비문과 기념비문 서각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비문 초안은 추진위원장 지관 스님(총무원장)이 직접 작성했으며, 도의 국사의 생애, 구법활동, 법맥 등이 국 · 한문 혼용으로 수록됐다.

'대한불교조계종종조도의조사입당구법기념비명'에서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서당지장(西堂智藏), 남전보원(南泉普願), 도의원적(道義元寂) 등이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상좌였음을 밝혀, 도의 국사가 마조의 법맥을 이었음을 적시했다.

특히 "도의 조사가 지장 선사로부터 수법(受法)한 정법안장(正法眼藏)이 근역(槿域)에 전래된 이후 염거(廉居)→보조체징(普照體澄)→황벽희운(黃檗希運)→임제의현(臨濟義玄) 등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했다. 이 부분은 비석이 세워질 중국 우민사측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선종의 법맥에 염거 · 보조 선사가 추가됨으로 새로운 법통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銘文 번역 전문 3면>

남동우 기자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763-2980
종로,서초,반배,송파,안산



이걸 먹으란 말이지? "이 음식에 깃든 은혜…." 7월 26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효행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공양게를 외울 때까지만 해도 의젓해보이던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남겨놓아야 할 단무지를 홀랑 먹어버린 아이, 발우를 닦고 난 단무지를 코를 막고 먹는 아이, 먹지 않아도 되는 천수물까지 마셔버리고 웩웩거리는 아이, 법당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다. 그래도 불교와 가까워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여, 지도 법사 스님의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社 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꿈 펼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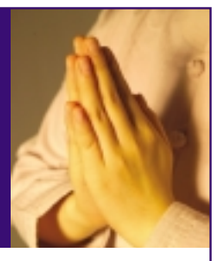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불교문화재연구소로

조계종 문화부 조직 재편

조계종 문화부가 행정조직 · 박물관 · 연구소를 갖춘 문화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구를 완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7월 23일 공포한 '성보박물관설립및운영에관한령'과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령'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성보박물관의 관리가 강화되고,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불교문화재연구소'로 확대 · 재편돼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재 관련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불교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성보박물관이 문화재 전시 및 보존 · 활용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발굴과 연구를 각각 맡게 되는 것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의 사찰 성보박물관을 총괄하게 된다. 박물관은 관장과 학예 · 사무국을 국장, 연구원, 조사원 사무원 등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성보의 전시는 물론 특별전 개최 등 문화재 보존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법계법시행령'에서는 비구와 비구니 법계별 가사 조수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명사 가사는 21조에서 25조로, 명덕은 19조에서 21조로, 현덕은 15조에서 19조로, 혜덕은 13조에서 15조로 각각 변경됐다.

남동우 · 여수령 기자

"국립공원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환경운동聯 토론회 개최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지 6개월.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종되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할 때보다 낮아져 국립공원인지 관광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마디로 국립공원은 공황상태다. 여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7월 26일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병인 교수(부산대)는 "국립공원관련법은 자연공원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 법제화하거나, 현재 공단을 공원관리청 등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기타 공원 보존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개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에서 스님들이 가야산 성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도 여러 법으로 중복 지정돼 상호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상충되는 경우도 많다"며 "공원 내 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한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와 관련 "사유지 중 집단시설지구나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매입해 국유화해야 한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민신탁운동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문화재관람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 이동, 관람 서비스 강화 △용도지구에 역사문화보전지구 신설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문화재 유지보수비용 책정, 정부지원방안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병용씨(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조정팀)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전년에 비해 탐방객이 50%,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적은 139%, 안전사고는 37%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내놓았다.

해인사, 환경운동聯 항의 방문

이에 앞서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등 200여명은 시민환경단체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과 관련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을 항의방문했다.

항의 방문단은 시민환경단체들에 △국립공원 대책안 수립 △다중선동 집단행동 중지 △정부에 국립공원 보호 사찰 문화재 보호 대책안 수립 요구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합천 해인사는 7월 22일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부대중 2000여명은 해인사 산문입구 홍류문 앞에서 '국립공원 지정의 목적은 자연보호'임을 강조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 대한 각성 및 종교적 포교권을 주장했다. 이어 남산제일봉 살리기 1만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진입로 5km를 행진하며 가야산 성역화를 주장했다.

남동우 ·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칠석, 백중,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東大, 신 교수 파면 결정 유보

차기 징계委 회의 때까지 연락두절 땐 징계절차 진행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7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사학위를 위조한 신정아 교수를 파면키로 했으나 징계 당사자인 신 교수와 연락이 안 돼 차기 회의(8월 3일 오전 10시)로 결정을 유보했다.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교육부에 확인 결과 교원 징계시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한 후 바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차기 징계위원회까지 신 교수가 서면 등으로 연락하지 않을 경우 파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신정아 교수의 박사학위 위조 사건을 형사1부(백찬하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으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7월 24일 밝혔다.

서부지검측은 "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입국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소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동국대가 7월 23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사기죄로 신씨를 서부지검에 고소한데서 비롯됐다.

또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광조)도 7월 23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신정아 교수 채용 의혹 규명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법안(위원장) 광조 여연 보인 운달 성직 혜오 스님 등 7명으로 구성됐고, 조사범위는 신 교수 채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9월 열리는 중앙종회 전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마가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은 선혜 스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마가,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선혜 스님이 7월 24일 임명됐다. 마가 스님은 1985년 사미계, 88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중앙대 겸임교수와 천안 만일사 주지를 맡고 있다. 1987년 사미계, 95년 구족계를 수지한 선혜 스님은 표충사 총무, 동축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9월 4일

조계종 제174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은 7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장윤 스님 특별 기고

양심 세력은 모두 어디로 갔나

동국대는 미술과 신모 교수의 박사학위는 가짜이며 채용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당초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의 고위책임자들이 나서 신모 교수의 학위는 진짜이며 채용과정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2월 15일 재단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지 다섯 달 만의 일이다.

그러나 동국대의 발표는 그동안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이상의 '진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신모 교수 채용과정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왜 덮어두려고만 했는지, 학교 고위층의 비호가 있었는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해소할 정도의 만족할만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아마 자체적 진상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됐거나 동국대는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특히 동국대가 불교종립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불교계에 미친 악영향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몇몇 사람의 독단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돌아보면 이번 사건은 처음 문제가 제기될 당시에라도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와 재단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해임까지 하면서 무조건 덮어만 두고 변명만 하려고 하다가 일을 키우고 말았다. 이제는 신모 교수가 교수가 되기 위해 가짜 학위를 제출한 것보다도 왜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느냐하는, 학교 당국의 도덕성에 대한 추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낙엽으로 오물을 덮는다고 구린내까지 막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입장에 놓인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태도는 동국대 책임자들과 비교된다. 이들은 신모 교수를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했다가 동국대에서 가짜 학위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감독선임을 취소했다. 또 신모 교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한편 이사진 전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신모씨가 동국대 교수라는 것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언필칭 양심과 정의를 들먹이는 대학사회의 고위층 인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불교계 내부의 이른바 '양심세력'을 자처하던 일부 단체들의 태도다. 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성명서를 낸다, 기자회견을 한다, 시위를 한다 하며 법석을 떨어왔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도무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 이 일이 불교의 일이 아니라서, 또는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만약 '양심(良心)'보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양심(兩心)'때문이라면 참다운 마음을 '양심(養心)'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언이폐지하고 이런 일은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만 깊어지고 흔적만 크게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관련자들은 발로참회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고 입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대학의 지성과 종교의 양심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천하를 시끄럽게 한 허물을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울산지사 : (052)272-0909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 남 · 여 <승려(행자) 모집>

<3개월 무료지도>

기본과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소승과 대승불교, 근본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항,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선불교, 인교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2007년 9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7년 9월 3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본대학 사무국 : 전 화 031)676-6207, 031)676-0908
팩 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영평사내 국제불교대학연구원 건물)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



불교계, 아프간 피랍 한국인 석방 한목소리

무사 귀환토록 자비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석방 촉구 호소문 발표
정토회, 법회 열고 '촛불발원' 가족들 위로도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살피시는 관세음보살님. 자비의 마음으로 저희를 살펴주소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에 억류돼 공포와 죽음의 긴장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주소서."

불교계 등 국내 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22명의 석방을 위해 종교간 벽을 뛰어넘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토회(대표 유수)는 7월 25일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불교 조계종, 천주교 주교회의, 원불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도 7월 23일 해밀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간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덕 KCRP 대표회장, 권오성 KNCC 총무, 손주영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사장 등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피랍된 이들은 아프간 유치원과 병원 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순수한 민간인들로 아프간에 어떤 정치적 적대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디 이번 피랍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뭇생명의 고통을 헤아리는 보살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정토회 법당에서 열린 법회에서 "그들의 목적이 비록 순수하지 못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소중한 생명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걸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보살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륜 스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랍자들의 무사귀환 뿐"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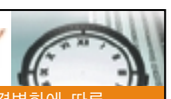
이날 법회는 '아프간 내 한국인 봉사자들의 활동상 동영상 소개' '피랍 한국인의 안전을 기원하는 명상 및 정근' '촛불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토회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가 걱정스러워 법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법회가 끝난 뒤 법륜 스님 등 참석자들은 서초동 인근 한민족복지재단을 방문, 피랍자 가족과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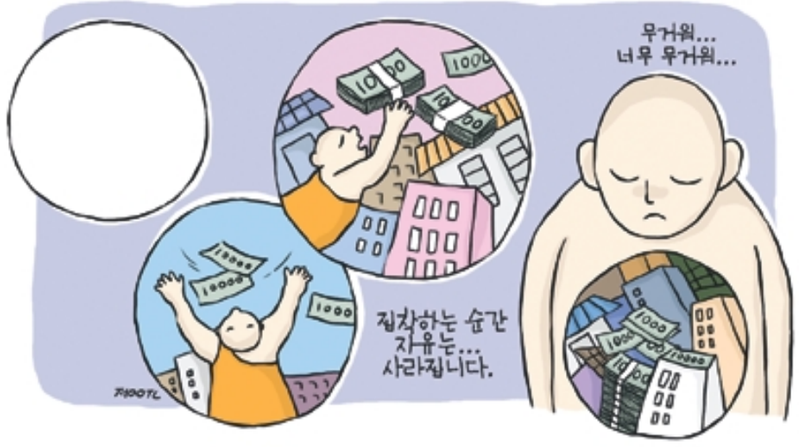
한편 대전 지역 불교계도 피랍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거리법회를 봉행했다. 대전충남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 등 100여명은 7월 25일 대전역 광장에서 법회를 열고 피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발원했다.

김주일 기자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대우증권 SPECIAL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I love Buddha / 집착

용정운(www.zentoon.com)



관음사 문제 해결 새국면

시몽 스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재임명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에 시몽 스님이 재임명됐다.

시몽 스님은 7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8월 초 제주지법의 주지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면 문제 해결의 끝이 보일 것 같다"며 "제주불자연합측도 이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의 주지직무대행 소임을 맡으면서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님은 "산중총회를 열어 새 주지를 선출하는 것이 문제의 끝"이라며 "직무대행 3개월의 임기 동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선관위원들의 마음의 동요도 보인다"며 희망적인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주불자연합측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임명하라 △신도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중단하라 △제주지역 불자간의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관음사 사태에 동문회원들이 동참한다고 제주불교문화대학을 엮앤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교원 한 관계자는 "제주 관음사 사태에 신도교육기관 재학생들을 개입시키거나 동원하는 것은 종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인 중원 스님 앞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사회활동 진흥법 입법 예고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5일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은 △종단의 사회활동과 불교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책방향과 업무 범위 규정 △종단과 본·말사의 사회활동 행정체계 규정 △불교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규정 △불교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관리방안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덴마크입양인 한국문화체험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7일간) 덴마크 입양인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학교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체험학교는 한글, 한국사, 택견, 사물놀이, 한국무용, 도자기 체험, 천연염색, 붓글씨, 한지공예, 한과체험, 강강수월래, 수지침, 한약재 설명, 논산8경 답사, 논산훈련소 병영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올 여름 '선정삼매'에 '푹'

서울 갈현동 열린선원(원장 법현)과 괴산 다보수련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선정으로의 여행(Journey to Jhāna 禪定三昧修行)'이라는 이름의 집중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한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중수련은 정명 스님(경영학 박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수련내용은 아나파나사띠를 통해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고 선정삼매의 방법을 배우며, 올바른 수행법 체득을 위하여 저녁법문을 통한 이론과 개별 인터뷰를 병행한다.

김원우 기자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조계종조 도의 국사 기념비 명문 번역 전문

양귀비(楊貴妃)는 할일없이 몸종옥(玉)을 부른것은
정부(情夫)였던 녹산(錄山)에게 암신호(暗信號)를 전(傳)함일뿐
이심전심(以心傳心) 전(傳)한다니 무슨법(法)을 전(傳)함인가?
불불조조(佛佛祖祖) 한결같이 이법(法)밖에 따로없다
남창(南昌)이란 옛군(郡)이요 뒷이름은 홍주(洪州)이며
서(西)쪽에는 노산(盧山)이요 남(南)쪽에는 형악(衡嶽)일세
안개덮힌 노산풍경(盧山風景) 천하사해(天下四海) 으뜸이니
혜원법사(慧遠法師) 동림사(東林寺)에 백련사(白蓮社)를 결사(結社)하고
일백이십(一白二十) 삼인동지(三人同志) 함께모여 발원(發願)하고
삼십여년(三十餘年) 만일(萬日)동안 출문(出門)밖을 나지않고
극락세계(極樂世界) 왕생(往生)하여 상품상(上品上)을 성취(成就)코자
북을치며 소리높여 육자염불(六字念佛) 하던도량(道場)
양조시대(梁朝時代) 제삼대(第三代)의 예장왕사(豫章王師) 갈심공(葛鱘公)이
우물속의 교룡(蛟龍)들의 격투(格鬪)함을 막기위(爲)해
삼만근(三萬斤)의 청동(青銅)으로 대불상(大佛像)을 조성(造成)하고
집을버려 절을삼고 대불사(大佛寺)라 이름했다
개원년간(開元年間) 현종황제(玄宗皇帝) 각군(各郡)마다 절을짓고
연호(年號)따라 동일(同一)하게 개원사(開元寺)라 이름했다
신라시대(新羅時代) 김대비(金大悲)가 정법니(淨法尼)의 후원(後援)으로
입당구법(入唐求法) 하는도중(途中) 이곳으로 주석(駐錫)했고
마조선사(馬祖禪師) 선법중흥(禪法中興) 팔십세(八十歲)로 입적(入寂)한후(後)
그의제자(弟子) 지장대사(智藏大師) 이도량(道場)을 계승(繼承)하다
당말(唐末)에는 영초주지(令超住持) 상람사(上藍寺)로 고치었고
송(宋)나라의 진종제(眞宗帝)는 승천사(承天寺)로 바꿨으며
정화년중(政和年中) 휘종제(徽宗帝)는 능인사(能仁寺)로 개편(改扁)하고
명태조(明太祖)인 주원장(朱元璋)은 어릴때엔 고아(孤兒)로써
황각사(皇覺寺)서 스님된후 이절에서 잠거(暫居)했고
등극후(登極後)엔 불법수호(佛法守護) 영령사(永寧寺)로 개체(改替)하며
순치년간(順治年間) 청세조(淸世祖)는 우청사(佑淸寺)로 환액(換額)하고
일구이구(一九二九) 혁명(革命)때는 우민사(佑民寺)로 변경(變更)했다
창건이후(創建以後) 오늘까지 천사백년(千四百年) 세월(歲月)동안
여덟번을 바뀌면서 많은풍상(風霜) 겪었도다
태몽중(胎夢中)에 스님과의 같은상(床)에 앉은후(後)로
삼구월(三九月)이 경과후(經過後)에 옥동자(玉童子)를 탄생(誕生)했다
어떤스님 찾아와서 간곡(懇曲)하게 부탁(討託)하되
산(山)모퉁이 하수(河水)가에 태반(胎盤)줄을 묻으라고
큰사슴이 지키기를 일년여(一年餘)를 계속(繼續)하다
어릴때에 출가(出家)하니 그의법호(法號) 명적(明寂)일세
입당구법(入唐求法) 발원(發源)하고 구팔년사(九八年四) 갑자년(甲子年)에
사신선(使臣船)에 편승(便乘)하여 구법(求法)길에 올랐었다
오대산(五臺山)에 올라가서 문수보살(文殊菩薩) 친견(親見)할 때
공중(空中)에서 범종(梵鐘)소리 신기(神奇)한새 높이날다
육조영당(六祖影堂) 찾아가서 참배예(參拜禮)를 올리련데
예배전후(禮拜前後) 영당문(影堂門)이 자동(自動)으로 개폐(開閉)하다
개원사(開元寺)로 찾아가서 서당지장(西堂智藏) 친견(親見)하고
달마선사(達磨禪師) 들은즉시(卽時) 활연돈오(豁然頓悟) 그경지(境地)가
법희선열(法喜禪悅) 쇄락(灑落)함이 석간(石間)에서 미옥(美玉)얻고
광명보조(光明普照) 지혜광(智慧光)은 방합리(蚌蛤裡)서 진주(眞珠)케다
정법안(正法眼)과 도의(道義)라는 건당호(建幢號)를 받은후(後)에
백장(百丈)찾아 대담(對談)한데 찬탄(讚歎)하여 말하기를
마조선맥(馬祖禪 脉) 송두리째 동국승(東國僧)에 귀속(歸屬)하니
일화오엽(一花五葉) 그아손(兒孫)이 온천하(天下)에 가득할세
삼칠년간(三七年間) 체재(滯在)하며 빠짐없이 참방(參訪)한후(後)
허왕실귀(虛往實歸) 가득채워 팔이일년(八二一年) 귀국(歸國)하여
삼처전심(三處傳心) 무상법(無相法)을 전(傳)하려고 애썼지만
달마대사(達磨大師) 양무제(梁武帝)를 만난같이 통(通)하잖자
교종(敎宗)에만 젖은무리 괴변설(怪變說)로 취급(取扱)했다
시절인연(時節因緣) 미도(未到)하고 기연미숙(機緣未熟) 탄식(嘆息)하곤
수제자(首弟子)인 염거(廉居)에게 전법(傳法)하고 입적(入寂)했다
염거(廉居)또한 전법(傳法)할길 못얻고서 입적(入寂)한후(後)
손제자(孫弟子)인 보조체징(普照體證) 가지산(迦智山)서 전포(傳布)하니
구산문중(九山門中) 가장먼저 도의선풍(道義禪風) 천양(闡揚)했다
구법(求法)하신 개원사(開元寺)에 이정석(貞石)을 세우노니
미래겁(未來劫)이 다하도록 영세불망(永世不忘) 하여지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지누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도난문화재 선의취득 대상 제외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시행도

앞으로 도난문화재의 경우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사찰경내지 발굴문화재의 소유권 증명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278호)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불교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도난문화재에 대한 민법의 선의취득 적용 배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 문화재보호법 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난문화재 소유자가 선의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문화재를 구입할 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선의취득' 논란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선의 취득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지급한 대가만 변상하면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모 사찰의 도난탱화를 구입한 소유자가 구입 금액의 예닐곱 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와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문화재의 불법유통과 문화재매매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격기준이 강화됐다. 그간 신고제로 운영해오던 문화재매매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제로 전환됐다. 문화재매매업자는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거나,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했거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만 한다.

또한 불교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매장문화재 소유권 관련 조항도 다소 완화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의 경우 90일 이내에(기존 30일)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법상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므로 취득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가 확립되고 문화재 도난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화재에 한해서만 소유권 판정을 하도록 했으므로 해당사찰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보호법의 미비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笑·蔬·小' 사찰음식 지혜 배워야"

(즐겁게, 채식위주로,적게 먹는)

불교학연구회, 부산 해월정사서 '불교 음식문화' 워크숍 개최

수년 전부터 사찰음식이 현대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의 대안으로 떠올라 관련 서적이나 강좌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는 수행을 위한 음식으로서의 선식(禪食)과 일반적인 의미의 채식(菜食)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7월 21~22일 부산 해월정사에서 개최한 여름워크숍의 주제를 '불교에서의 음식문화'로 정한 것은 수행과 음식의 관계를 올바르게 밝혀보자는 뜻에서다.



'불교에서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의 지혜를 전했다.

21일에는 사찰음식연구가인 선재 스님(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장)이 참석해 '불교 음식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오늘날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만 비춰지는데, 선식은 생명 유지와 더불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의 지혜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笑食) 채소를 주로 먹고(蔬食) 적게 먹는(小食) 삼소식 △청결하게 조리할 것 △삼덕(三德)과 육미를 갖출 것 △생태리듬에 맞고 제철 음식을 먹는 바른 식습관을 가질 것 등을 꼽았다. 또한 조리하고 먹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고, 섭생하는 사람의 근기와 목적에 맞게 먹고, 조리와 식사 과정이 법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도부에 나타난 식생활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지상 스님은 "두타행이라는 원칙에 얽매이는 수행생활만이 능사가 아니며, 중도적 삶을 지향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과 시대에 맞는 융통성 있는 공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심준보 전임연구원(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은 '율장에 나타난 마늘의 연구'에서 "초기 교단시대의 인도 사회에서는 마늘에 대한 금기가 강하지 않았으나, 악취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금기가 강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미 기자

봉은사 대입 무료특강

수험생 집중공부법 강연 등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8월 1~7일 '대학입시 무료특강'을 개최한다.

1일 열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금강선원 원장인 혜거 스님이 '수험생을 위한 15분 집중공부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2일에는 이석록 메가스터디 평가연구소장이 '대입 수능 D-100 전략'을, 3일에는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이 '2008학년도 대학입시 경향분석'을 지도한다. 4일에는 사찰음식연구회장인 홍승 스님이 '수험생을 위한 건강음식'을, 7일에는 이인수 한의학 박사가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봉은사는 "수험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시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의는 오전 11시 법왕루에서 진행된다.(02)3218-4821

여수령 기자

불교가 말하는 '삶·죽음·해탈'

2007 교수불자대회, 8월 20일부터 평창 월정사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가 주최하는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가 '생로병사와 해탈'을 주제로 8월 20~22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다.

김용표 교수는 "불교의 생사관과 해탈관을 조명하고 웰빙과 수행의 접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20일 대법륜전에서 열리는 결제식에서는 고우 스님(금봉암 조실)이 '생사일대사와 해탈'을 주제로 법문하고,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가 기조 강연한다.

21일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생로병사와 해탈' '웰빙과 불교수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상가 틸라카라트네(스리랑카 캘로니아대학)의 '테라바다 불교에서의 삶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해방', 애니 N. 사피로(미국 나로파 대학)의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 글로리아 윈슬로우 브룩스의 '불교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비롯한 2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22일에는 '공동체와 불교' '인간심리, 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등을 주제로 분과별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산사음악회와 참선 · 108참회 · 걷기명상 · 요가 등의 수행법 체험,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02)720-6618

여수령 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창립 1주년 법회

불우환우 돕기 일일찻집 행사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창립 1주년을 맞아 7월 20일 여여선원 8층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원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살생계(不殺生戒)는 단순히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부산지역본부가 창립 초심으로 돌아가 생명나눔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대성 스님(범어사 주지)은 "현대의 생명경시풍조 가운데 나눔이 있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여타의 다른 단체보다 의미가 있다"며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는 대생명주의사상의 실천이 되는 뜻 깊은 단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법회에서는 난치병 환우 박소원(18,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어머니 조성자씨에게 범어사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의 '자선 바자회' 수익금 전액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여여선원 2층 보송찻집에서는 '불우환우 돕기 일일 찻집'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하성미 기자

지운 스님 자비다선 강좌

부산 미타선원 교육원서

부처님의 자비를 차와 명상으로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자비수관 자율정진모임인 부산수심회(회장 김석자)는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을 법사로 '자비다선 2기' 및 '자비수관' 강좌를 연다.

자비다선 2기는 8월 1일부터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미타선원 교육원에서 마련된다. 자비 다선은 차를 통해 명상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연상작용을 이용하는 수행법이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님의 손을 연상하며 몸의 촉감을 알아채는 명상법이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지운 스님은 2006년 성주에 자비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자비선사 회주와 현재 대구 동화사 강주로 활동중이다.(051) 253-8687

하성미 기자

봉원사서 서울연꽃축제 개최

제5회 서울연꽃축제가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신촌 봉원사 특설 도량에서 열린다.

봉원사(주지 환우)와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연꽃축제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300여 종의 연꽃이 선 보일 예정. 축제기간에는 부대행사로 연꽃 사진전과 묵화전, 연꽃으로 만든 도자기 전시, 연꽃차 시음회, 청소년 참나 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연꽃축제 집행위원장 선암 스님은 "이번 축제는 연꽃을 소재로 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삭막한 도심에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화계사, 토요 가족예술제 마련

최근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 경내에 평상 8개가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얻은 이름은 '화계열린마루'. 화계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다. 일요일이나 재일에는 불우이웃돕기 찻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화계사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평상이라는 열린공간을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예술제를 마련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화계사에 가면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한여름 밤의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02)902-2663

남동우 기자

간화선 입문 희망자 30명 모집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8월 11~14일 경북 봉화 축서사에서 진행하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화두참선으로의 초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우 스님의 법문과 혜산 스님의 참선 지도, 예불과 108배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8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제6기 일반과정 참가자도 모집한다.(02)735-2428.

여수령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가족치료 특강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가족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가족간의 관계는 어떻게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할까?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가족치료'를 화두로 8월 월례특강을 개최한다. 8일 오후 4시 조계사교육관 2층 제4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이기영 소장(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이 가족상담 기법을 통해 가족과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비 5000원.(02)737-8803

여수령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3년과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지도 : 법화사상 / 박종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


(지도 : 정산스님)

불교한문학과



(지도 : 임채우교수)

불교미술학과


(지도 : 김익홍 교수, 법인스님)

불교다도학과


(지도 : 오양가 교수)

불교장례문화학과


(지도 : 김미혜교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학과(2년)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등 18과목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정엄스님(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등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주역(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삼국유사(1)	임채우(연세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황안웅(원광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 (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오양가교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8월 1일 ~ 2007년 9월 4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3. 개강일시 불교학과 : 8월 4일 (토), 한문학과 : 9월 6일 (목)
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4일 (화)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2 계룡산 동학사

절 가까이 살지만 여유로움 없어


노점상들


문창살 무늬가 독특한 동학사 대웅전.


동학사 경내.


동학사 일주문.

대전 · 공주서 가까운 탓에 절 찾는 손님 많아
마을 절반이 상가… '살 손님' 아니면 대회 기피
경내에 일중 · 여초 형제의 글씨 비교 감상 '재미'

"그냥 동학사지요. 옛날에는 여관 같은 게 저 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내려왔지요."

대여섯 사람에게 물어서 겨우 얻은 것은 이것 밖에 없다. 손님 많은 곳의 인심이 더 야박하다. 도시에 가까울수록, 손님이 많을수록 말 한 마디 붙이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 나라 절집 백여 군데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손님 많은 절의 사하촌에서는 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학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가까운 탓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보니, 저마다 손님 맞기에 바쁘다. 또한 물건 살 손님이 아니다 싶으면 말대답도 하지 않는다. 사진 찍히는 것도 마다하고, 이름 알려주는 경우도 없다. 절로 향하는 사람은 꽤 있지만, 가게를 들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가하지만 가게 주인의 눈길은 말 거는 내게 향하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리 쪽에 있다.

한참을 걸어 학봉초등학교 근처로 간다. 동학사 아래의 상가들이나 초등학교 인근이나, 행정구역상 지명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속하지만, 상가 지구는 따로 '동학사'라 부르고, 초등학교 근처는 학봉리, 혹은 돌이 많다고 하여 석봉리라고 부른다. 이 마을도 절반쯤은 상가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사람이 이종길(65)씨다.

"여기가 석봉, 저 위 동학사, 저 아래가 말목재, 저 밑이 지석골, 저 짝 건너 사기수, 그 짝 너머에 신도안. 다 학봉리."

"신도안까지요?"

"거기는 아니고."

마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고, 예전에도 스님들의 속가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면 자신이 그것을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몇 사람을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마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상가가 많은 탓에 대부분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절 가까이 살지만,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석봉에서 동학사라 불리는 상가 밀집 지역까지는 버스로 두 정거장쯤 된다. 땡볕을 견디는 벚나무 잎색이 더 짙어진다. 멀리 보이는 솔숲과 암봉의 대비는 절묘하다. 현으로 깊어지는 소나무 숲 사이로 도드라진 암봉은 파르스름하게 잘 깍인 스님들의 정수리 같다.

노점상들이 죽 늘어서 있는 게 보인다. 오디, 딸기, 대추, 군밤, 구운 옥수수 등을 판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인지 아예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매표소를 지나 절로 든다. 동학사에 대여섯 번 왔지만, 오후에 온 것은 처음이다. 이른 아침의 동학사도 싱그러웠지만, 오후에 온 동학사도 마음속을 푸르게 물들인다. 수량이 많지 않는 동학사 계곡에 단풍나무나 쪽동백나무 잎의 녹색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다. 쪽동백나무 연두 그늘은 성스럽다. 그 그늘은 몸을 헹구고 마음을 헹구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뚝 솟은 일주문이 보인다. 글씨는 지난 2월 타계한 여초 김응현 선생의 작품이다. 동학사에 올 때마다 나는 여초와 일중의 글씨를 비교해 보는 재미에 빠진다. 일주문 현판의 글씨는 여초가 썼지만, 범종루의 글씨는 일중 김응현 선생이 썼다. 친 형제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현대 한국 서단의 큰 봉우리로 우뚝 서 있다가, 형인 일중이 지난해에 타계하였고, 뒤이어 여초도 이승을 하직하였다.

사람이 드문 초록 길을 애벌레가 기어가듯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사람들의 바람이 깃들었을 조그만 돌탑들. 바람은 사람들의 영원을 흐트리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지나간다. 먼저 보이는 것은 문수암이다. 동학사는 특이하게도 문수암, 길상암을 비롯한 몇 개의 암자와 고려말 삼은을 모신 삼은각, 단종과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숙모전(옛 초혼각), 신라 충신 박제상의 위패를 봉안한 동계사 등의 건물이 나란히 모여 있다. 그런데 여느 절에서나 볼 수 있는 사천왕문과 금강문은 없다.

대웅전에는 동학사에서만 볼 수 있는 문창살 무늬가 있다. 원목으로 부조를 뜬 것 같은 무늬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나의 문짝에 하나의 작품이 새겨져 있다. 문양도 특이한데 문짝마다 다르다. 소나무에 학 두 마리가 새겨진 문양이 맨 먼저 보인다. 소나무 뿌리 근처에는 난초가 자라고 있다. 그 옆문에는 대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옆문은 국화 문양이다. 어쩐지 절집에서 즐기는 문양들이 아니다. 그렇다. 소나무, 대나무, 국화 등은 선비들이 즐겨 그렸던 소재이다.

부처님을 배알하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범종루 옆에 수련이 피어 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라 연꽃이 봉우리를 닫고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찰라다. 연꽃은 이른 아침에 꽃봉우리를 열었다가 오후 세 시쯤이면 봉우리를 다물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가장 충만한 양기를 받겠다는 꽃의 지혜다.

계룡산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동학사. 어여쁜 봉우리들이 부드럽게 감싼다. 요니를 신으로 받드는 인도인들의 지혜가 새삼스럽다. 아늑하다. 어머니의 자궁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문득 양수 터지듯 독경 소리가 들려온다. 비구니들의 독경은 처음에는 경전이더니, 이내 음악이 된다. 피리 떼가 계곡을 치고 올라간다. 피리 떼가 나뭇 잎 속으로 스민다. 피리 떼가 내 안으로 들어 나를 해체시킨다.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 나간다. 나는 나마저 놓아 버리고 피리 떼에 섞여 골짝 골짝을 헤치고 다닌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고 노는 것임을 비로소 알겠다.

공주=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계룡산 도예마을

10여명의 도예가 자생적 도예촌 이뤄
체험코스 각광, 분청사기 축제도 열려

하얀 분청 위에 산화철(검은색)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인 철화 분청사기. 계룡산 일대는 철화 분청사기의 산지였다. 인근 온천리 학봉리 일대에 무려 120여개의 가마터가 발견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약 연구 모임을 함께 하던 중 누군가의 제안으로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촌장을 맡고 있는 김용운(44 · 사진)씨가 1993년 가장 먼저 입주하였고, 뒤이어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10여 곳의 공방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의견 충돌도 없다.

"자생적 도예촌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쩐 단체나 지자체 같은 데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요."

이곳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공주시에서 시티투어 코스로 넣어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체험 관광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 생기면 다 나와서 같이 해요. 저번 토요일에 모여 여자들은 밥 하고, 남자들은 개보수(집) 하고 그랬지요. 풀 깎기나 청소 같은 것은 다 공동으로 해요."

방학이나 주말에는 도예 캠프를 열고,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져갈 수도 있다. 도예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학에 출강을 나가기도 하는 김용운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사학을 전공하였던 그는 박물관에서 발굴 유물 복원 작업을 하다가 도자기에 빠지게 된 것. 또한 함께 도자기를 공부하던 부인 팽정화씨를 만나 결혼까지 하였으니, 도자기는 그에게 천직인 셈.

한편 최근 완공한 도예촌 갤러리 개관 기념으로 "魚文이 있는 면기 상차림전"을 7월 28일에서 8월 10일까지 연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 · 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자신의 운명수와 궁합 · 전화번호와 궁합 · 자동차번호와 궁합 · 날짜로 보는 운명 · 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화제의 신간

대한민국 운명록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숭볼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졌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 그럼 17대 대통령은 누구?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질 않음으로써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 · 사고들……. 8 · 15광복, 6 · 25동란, 5 · 16, 10 · 26, 12 · 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 · 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代) / Fax. 02-3142-4901 • 해광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선원 해광스님〉 T. 032-665-8472

일주문



경남도청에 2천만원 기탁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7월 20일 경상남도청을 방문, 공창석 행정부지사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기탁했다.



선남선녀 인연맺기 프로그램 진행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칠월칠석을 맞아 8월 18일 보우당에서 '선남선녀의 아름다운 인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547-7831



제14회 백련시사 봉행
30여 년 간 백련보급에 앞장서 온 혜민 스님이 7월 21일 예산 청화제에서 제14회 백련시사를 봉행했다. 시사는 석전시 동인회의 시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前 미 법무국 변호사 초청 강연회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종연 前 미 법무국 선임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캄보디아 방문 상호교류 논의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7월 23~28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정부 당국자와 불교 담당자를 면담하고, 상호교류와 국제결혼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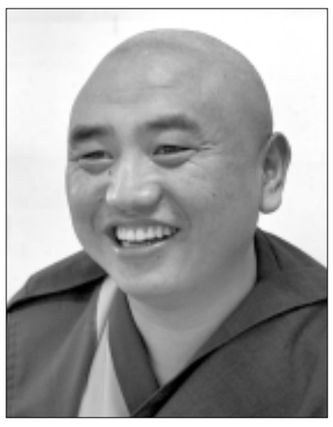
독거노인 생신잔치 행사 개최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7월 24일 SK네트웍스 사랑모암봉사단의 후원으로 지역 독거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생신잔치를 열었다.



연등국제선원 일고 스님 초청법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은 8월 6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강화 연등국제선원 일고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2)722-2206

"티베트 불교 한국에 알리고 싶어"

한국티베트센터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



한국티베트센터 부산 광성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주지로 취임한 소남 갈첸(Sonam Gyaltsen · 사진) 스님이 8월 15~18일 '티베트불교문화캠프'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 온 소남 스님은 "티베트 문화는 그 자체가 불교"라며 "티베트 문화를 통해 불교를 알리기 위해 문화캠프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캠프에서는 티베트불교 일상수행법, 오체투지, 참회 수행, 기도문 등 전통 수행방식을 재현해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티베트 경전인 <람림> 강의도 마련된다. 더불어 '컵' '쿤둔' '리틀 붓다' 등의 영화 감상, 티베트 주식인 짬빠와 짜이 시식, 타르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티베트센터에서는 티베트 현지에서 불교를 공부하듯 깊이 있게 티베트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도 번역해 볼 예정입니다."

1986년 달라이라마에게 사미계를 받은 소남 스님은 인명학, 고사론, 중론, 율장, 반야 등 5대경을 공부하고 6년 뒤 시험을 거쳐 '게시하람빠(불교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규토 사원에서 밀교를 수학하고 드레풍 라뙤 사원에서 10년간 호법 소임을 맡았으며 2004년 밀교 시험을 통과하여 '낙람빠' 학위를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4년 동안 매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다람살라에서 여셨습니다. 첫 법문의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입보리행론>을 설파하시고, 4년간 꾸준히 전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이 보리심과 보살행의 실천을 강조하는 <입보리행론>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남 스님은 앞으로 티베트 명상 모임을 이끌어 수행법회를 열고 목요일에는 티베트어 강좌, 금요일에는 람림 법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음력 보름과 30일에는 티베트 전통 방식에 따라 대승포살계 수계식을 봉행하며 티베트 불교를 알려나갈 계획이다.(051)243-2468

하성미 기자

"무용 전공자 선발 집중교육 할 것"

조계사 무용단 총감독 임이조씨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임이조 한국전통춤연구회 이사장(사진)이 서울 조계사 무용단 총감독으로 부임했다. 임 총감독은 우봉 이매방 선생에게 승무 춤을 사사해 대중화에 힘썼을 뿐 아니라 보살춤 등을 창작해 불교 이미지를 춤으로 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임 총감독은 '개벽의 북소리' '出' '한이 깊으니 흥도 깊더라' 등의 작품과 '춘향전' 방북공연 연출 및 안무를 통해 한국전통무용의 명맥을 잇고 있는 춤꾼이며 안무가로, 우리 무용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무용단, 청년 무용단, 어머니 무용단, 일반 무용단 등 4개 계층으로 무용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그는 "무용 전공자를 선발·교육해 내년 가을 회화나무축제 때 조계사 관현악단, 합창단과 함께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무용과 관련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테마 속에서 전체 줄거리가 있어야 하며 극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가무악 '원효 대사'를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는 "부처님 일대기를 무용으로 구성해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임 총감독은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 성화대 · 호원대 겸임교수,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불교신도·스님 위한 통일교육 적극 후원"

민주평통 종교위원장 원택 스님



"종교계의 통일관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 정책을 종교인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입니다."

7월 19일 출범한 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원택 스님(부산 고심정사 주지 · 사진)은 "불교계에서 종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그간 불교계에서 펼쳐온 평화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본말사 주지연수나 신도 교육 등에서 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 종교분과위원회에는 불교계에서 현성(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회장) 춘광(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효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법안(금산사 주지)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혈액암 투병 방경우씨 8월의 환우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8월의 환우로 방경우(42 · 사진)씨를 선정했다.

올해 초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던 방씨에게 날아든 것은 입사 소식이 아닌 말초성 T세포 림프종 혈액암 진단. 이후 4개월 동안 5번에 걸친 항암치료를 받은 그에게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연세 많은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두 아이가 있다. 부인 역시 골반염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

다행히 8월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계획이라 한줄기 희망을 잡았지만, 3000만원이나 드는 수술비용은 또 다시 그의 몫이다. 다섯 식구의 든든한 가장으로 다시 설 방씨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때다.(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여수령 기자

"불교 심성 프로그램 만들 것"

역삼청소년수련관 진정순 관장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전임 관장의 인수인계 거부로 진통을 겪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이 7월 18일 재개관하고 정상운영을 시작했다. 3월 5일 신임관장에 임명됐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던 진정순 관장(63 · 前 당곡초교 교장 · 사진)은 "문화재 애호활동과 청소년 명상 및 요가교실, 선무도등 전통문화활동, 선이 결합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순 관장은 한국스카우트중앙연맹 최초의 여성 이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으며, 올해 6월 1일 창립한 교육경영직불자회 푸루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신임관장 취임식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0일 복지관 강당에서 신임 관장 보인 스님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10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양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았으며, 용문사가 운영지원 사찰이다. 보인 스님은 "양평군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사생대회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장용철)은 7월 22일 요양원 및 북부노인병원 앞마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그림으로 열어가는 복지세상'을 개최했다. 사생대회에서는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20여 명의 어르신과 일반인 50여 명이 함께 어우러져 그림 솜씨를 겨뤘다.

순천 홍선사, 재소자 독경·찬불가 대회



순천 홍선사(주지 정환)는 7월 19일 순천교도소 강당에서 '제12회 순천교도소 재소자 독경 · 찬불가 대회'를 봉행했다. 500여 재소자 불자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정환 스님은 "폐쇄된 공간이지만 신심과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신행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 고승초청 법회 봉행



전주 화엄불교대학(원감 덕림)은 7월 22일 조계종 원로의원인 불심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을 법사로 고승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장수군 공무원불자회 한국희 회장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10바라밀의 수행으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할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3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금강산에 오르는 청소년들.


제10회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7월 24일 밤 삼포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의 장기자랑에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금강산 연합캠프' 동행 취재


신계사 통일기원법회 모습.


통일기원등을 만드는 학생들.


연합법회 모습.

일 만 이천 봉에 '통일 주역' 발원

"자비하신 부처님!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덕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남측의 청소년 불자들은 평화로운 조국통일을 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의 제10회 청소년연합캠프에 참가한 총 1400여명중 1진 700여명이 7월 24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평화통일을 일심으로 발원했다.

광주 정광고 2학년 손이슬 양의 사회와 윤영준 군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청소년들은 "한겨레가 두덩이로 갈라졌으나 그 아픔과 슬픔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을 참회한다"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불퇴전의 용기와 감로의 법문으로 지혜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민족의 성지인 금강산 신계사에 온 만큼 미래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의 법문과 "부처님을 닮아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신계사 주지 제정 스님의 환영사를 가슴에 되새겼다.

이어 두 손을 모으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북한의 친구들에게 전달할 정성스럽고 예쁘게 포장한 학용품들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

학생들이 가져온 학용품은 노트 연필 크레용 지우개등 총 32박스나 됐다. 불자기업인 (주)화승도 축구공과 농구공 200개를 함께 기증했다. 학용품 등은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400여명 신계사서 통일기원법회 열고 평화통일 발원
학용품 32박스, 축구공·농구공 200여개 北측에 전달
장기자랑으로 젊음 나누고 탁본 체험하며 신행활동도

참가학생들과 지도자들은 회장 도후 스님의 선창에 따라 동요 '금강산'을 함께 부른 뒤 파라미타캠프 1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계사에 기념식수를 했다.

행사에 참가한 김광중(부산 해동중 2년) 학생은 "역대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금강산 신계사와 만물상을 오르며 법기 대사가 1만 2000명의 제자들과 각 봉우리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들으며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금강산 탐방을 마친 뒤 숙소인 삼포 코레스코 콘도로 돌아와 삼포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낙산사 재무국장 무문 스님의 특강을 들었다.

무문 스님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스스로 뜻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강 후 무술인 십팔기 시범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어 펼쳐진 청소년 장기자랑시간. 20팀이 선보인 장기자랑에서는 학생들이 저마다 준비한 노래와 무용을 선보이며 한 여름밤의 해변을 환호의 물결로 수놓았다.

학생들은 25일 신행활동으로 통일기원등과 통일기원 나무 만들기와 인경 및 탁본체험을 한 뒤 삼포해수욕장에서 자유수영과 비치볼 놀이 등을 하며 해양활동에 참가했다.

또 오후에는 낙산사를 순례했다. 학생들은 낙산사 유래와 화재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별로 문화재 퀴즈대회와 의상대사 알기, 관음보살 명호배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홍련암을 참배하고, 관음굴을 견학한 뒤 해수관음상 앞에서 합동예불을 올린 후 '성보문화재 애호에 적극 동참한다'는 발원문을 봉독했다.

학생들은 통일 백일장 대회와 회향식 전야제로 열린 전국청소년음악놀이 페스티벌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금강산/글 · 사진=김원우 기자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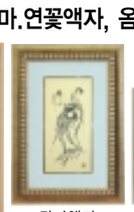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금액별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밥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 (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0> 따로 임제종의 종지를 밝히다

앞에서 선종의 다섯 종파에 대한 가풍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따로 임제종 종지만을 밝힌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에서는 임제종을 선종의 정통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산 스님도 임제종의 간화선을 주장하며 평생 그 길을 밟아왔고, 또 후학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간화선을 중심으로 <선가귀감>을 저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제종의 종지를 밝히는 데에 있어 먼저 '3구(三句)' '3현(三玄)' '3요(三要)'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가귀감> 78-2장에서는 이것과 함께 임제종의 종지를 이해할 수 있는 '4료간(四料簡)' '4빈주(四賓主)' '4조용(四照用)' '4대식(四大式)' '4할(四喝)' '8방(八棒)'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大凡 一句中具三玄 一玄中具三要 一句 無文綵印 三玄三要 有文綵印. 權實玄照用要.

무릇 '일구(一句)' 가운데 3현이 갖추어져 있고 '일현(一玄)' 가운데 '3요'가 갖추어져 있다. 일구에는 말이나 글로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삼현과 삼요에는 말이나 글로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방편과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玄)'이요 그 진리를 통찰하는 힘이 있어 그 힘을 현실에 바로 쓰는 것이 '요(要)'이다.

'3구'에서 첫째 구는 '사람의 몸을 잃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고, 둘째 구는 '입을 열기도 전에 잘못된 것'이며, 셋째 구는 '똥을 담는 삼태기와 마당을 쓰는 빗자루'이다.

'3현'에서 첫째 '체중현(體中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생각에 다 들어 있는 것들'이니 본바탕에서 깊은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구중현(句中玄)'은 '말길이나 뜻길이 다 끊어진 말 한마디와 같은 것들'이니, 이 한마디 가운데서 깊은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현중현(玄中玄)'은 말없이 침묵 속에 한참 있게 되는 '양구(良久)' 방망이질하는 '방(棒)', 고함치는 '할(喝)'과 같은 것들이니 깊은 도리에서 깊은 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3요'에서 '첫째 요지'는 '진리를 통찰하는 힘[照]'이 곧 오롯한 바탕으로서 '대기(大機)'이고, '둘째 요지'는 '진리를 통찰하는 힘'이 곧 현실에 바로 오롯하게 쓰이는 대용(大用)'이며, '셋째 요지'는 진리를 통찰하는 힘'과 '그 힘이 현실에서 바로 오롯하게 쓰이는 것' 곧 '대기' '대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산 스님 임제종의 간화선 주장 '선가귀감' 저술
'3구' '3현' '3요'의 내용 이해하는 것이 중요

공부를 점검 받고자 하는 상대방의 근기를 네 가지 부류로 헤아려서 후학들을 맞이하는 '4료간(四料簡)'에서, 사람은 죽이지만 경계는 죽이지 않는 '탈인불탈경(奪人不奪境)'은 낮은 근기를 상대하는 것이고, 경계를 죽이나 사람은 죽이지 않는 '탈경불탈인(奪境不奪人)'은 중간 근기를 상대하는 것이며, 사람과 경계를 다 죽이는 '인경구탈(人境俱奪)'은 높은 근기를 상대하는 것이고, 사람과 경계를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인경구불탈(人境俱不奪)'은 뛰어난 대장부를 상대하는 것이다.

선지식을 주인에 비유하고 학인을 손님에 비유하여 그들의 수행 정도에 따라 문답형식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표현한 '4빈주(四賓主)'에서, 손님 중의 손님 '빈중빈(賓中賓)'은 학인이 숨쉴 구멍이 없으므로 학인의 물음이 있고 선지식의 대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손님 중의 주인 '빈중주(賓中主)'는 학인에게 숨쉴 구멍이 있으므로 학인이 주인 노릇도 하고 선지식과 오고가는 법도 있게 되는 것이다. 주인 중의 손님 '주중빈(主中賓)'은 선지식에게 숨쉴 구멍이 없으므로 학인의 물음만 있고 선지식의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것이다. 주인 중의 주인 '주중주(主中主)'는 선지식에게 숨쉴 구멍이 있으므로 아무 걸림이 없어 뛰어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사가 학인을 다루는 방편인 '4조용(四照用)'에서 먼저 학인의 역량을 알아본 뒤 법을 쓰는 '선조후용(先照後用)'은 어떤 사람이 있을 뿐이고, 먼저 법을 쓴 뒤 학인의 역량을 비추어 알아보는 '선용후조(先用後照)'는 어떤 법이 있을 뿐이다. 학인의 역량을 알아보는 동시에 법을 함께 쓰는 '조용동시(照用同時)'는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듯이 학인의 사정을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고 조사의 법령으로 학인의 신명(身命)을 단숨에 뒤바꾸는 것이다. 학인의 역량을 알아보는 것과 법을 쓰는 것이 동시에 있지 않는 '조용부동시(照用不同時)'는 학인의 질문에 종사의 대답이 있게 되는 것이니, 학인의 근기에 따라 학인을 다루는 방편이다.

학인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네 가지 격식인 '4대식(四大式)'에서, '올바른 이익을 주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격식'은 '달마가 소림굴에서 벽을 마주하고 앉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 '평상시 도리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격식'은 '화산 스님이 북을 칠 줄 안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며, '본분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격식'은 '산승은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격식'은 달마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할'의 성격을 네 가지 쓰임새로 구분한 '4할(四喝)'에서, '금강왕보검의 할'은 한칼에 온갖 알음알이를 끊는 '할'이고, '웅크린 사자가 포효하는 할'은 모든 마귀의 머리가 터지는 '할'이며, '장대로 더듬고 풀 더미 그림자로 기척을 살피는 할'은 스승의 공부를 이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학인의 역량을 살피는 '할'이고, '깨달음에 관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할'은 위에서 말한 '3현'과 '4빈주(四賓主)'를 다 갖춘 '할'이다.

종사들의 방망이질에도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8방(八棒)'의 내용은, 조사의 영을 내려서 깊은 이치로 돌아가게 하는 방망이질, 헛된 생각을 닥치는 대로 없애 올바른 이치를 따르게 하는 방망이질, 깊은 이치라도 내치고 올바른 이치라도 깎아내리는 방망이질, 모질게 질책하는 방망이질 이 네 가지는 모두 벌을 주는 방망이질이니 '벌방(罰棒)'이다. 종지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상으로 때려주는 방망이질은 '상방(賞棒)'이고, 헛된 것과 참된 것이 뒤섞여 있으니 이것을 가려주는 방망이질은 '변방(辨棒)'이며, 눈 먼 도리깨처럼 함부로 휘두르는 방망이질은 사리에 어두워서 눈이 먼 '할방(瞎棒)'이며, 범부이든 성인이든 모든 지견을 몽땅 쓸어내는 방망이질이야말로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는 '정방(正棒)'이다.

이와 같은 법들은 특별히 임제종의 가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모든 중생에 이르기까지 다 본분에 맞아떨어지는 일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해 놓은 법을 벗어나게 되면 모두 거짓말이 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여래장(如來藏)

아무리 무지한 중생이어도 모든 중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뇌 속에 부처님을 품고 있다. 즉 인간은 본래 여래가 될 요인(여래의 태아), 즉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여래장(如來藏)이다. 여래장은 산스크리트어 tathāgata-garbha를 번역한 말이다.

여래장은 모든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여 있는 본래 맑은 자성청정한 여래법신을 뜻한다. 이 여래장은 번뇌 중에 있어도 번뇌에 더러워짐이 없고, 본래부터 절대청정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깨달음의 본성이다. 더러움과 맑음 등 모든 현상이 여래장에서 연기했다고 설하기에 여래장연기라고 한다.

여래장 사상을 최초로 논한 <여래장경>은 '일체 중생은 여래장'이라고 선언하며, 번뇌에 둘러싸인 중생 중에 여래지(如來智)·여래안(如來眼)을 갖춘 여래가 단좌(端坐)하고 있다고 말한다. <승만경> 법신장에는 '여래법신의 번뇌장을 여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러한 여래장 사상 형성의 배경에는 원시불교 이래의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및 진리와 사물을 동시에 의미하는 법(法)의 개념, 그리고 <화엄경(華嚴經)>의 미진함천(微塵含千:하나의 작은 티끌에 삼천대천세계가 포함되어 있음)의 비유, <법화경(法華經)>의 일승(一乘:초기 대승불교에서 비판되었던 성문·독각도 보살과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설) 사상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2>

정신분석과 불교-2

정신분석과 불교는 출발의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신분석의 대상은 환자다. 환자란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 일상적인 삶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불교의 수행자는 이와 반대로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발현한 사람이다. 이 둘 가운데에 보통 사람들, 일상인이 놓여 있다.

이를 자아초월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전개인(pre-personal) 단계, 자아가 형성돼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개인(personal) 단계,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여 조금 더 지고한 삶을 추구하는 초개인(trans-personal) 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즉, 정신분석의 대상인 '환자'는 전개인 단계에 놓인 사람이며, 개인 단계인 수행자는 초개인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므로 행위의 주체 또한 다르다. 정신분석에는 '치료자와 환자'라는 관계가 설정돼 있다. 치료자가 주도가 되어 환자를 분석한다. 환자는 자기의 심리 속에 있는 재료를 자유연상, 꿈, 전이, 저항 등을 통해 내어놓을 뿐이다. 환자는 '분석의 대상'으로서 분석을 '당한다'.

불교에도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다. 불교의 스승은 자신이 먼저 가 본 목표 지점, 진리의 세계에 가는 길을 알려 주는 안내자다.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제자의 몫이다. 안내는 받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는 주체자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변화무쌍한 자신의 심리세계를 여실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스승의 또 하나의 역할은 제자들이 자기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검증해 주는 것이다.

정신분석에서도 분석가의 해석에 따라 환자가 '통찰'을 하는 과정이 있다. 여기서 피분석자인 환자가 비로소 주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요리사인 분석가가 만들어 준 음식을 환자가 받아먹어서 소화시키는 역할일 뿐이다.

정신분석에는 치료자가 주도가 되어 환자 분석
불교에서 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길 가는 주체자

이후 인간중심상담에서 내담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고, 정신분석에서도 분석가는 다만 피분석자의 거울 역할을 할 뿐이라고도 하지만, 분석가 중심의 관계 설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신분석에는 '교육 분석'이란 개념이 있다. 교육 분석의 대상은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수련생이다. 즉 전개인 단계가 아니라 개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환자와 치료자' 관계의 분석과는 다르다.

이밖에 '자기 분석'이란 개념도 있다. 이는 스스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많은 환자를 분석하는 한편 스스로를 분석함으로써 정신분석 이론을 구축하였다. 이 자기 분석이 불교의 수행과 가장 근접하기는 하나, 앞에서 살폈듯이 그 범위와 지향점이 불



그림 : 문병성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교육원 개원안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지 16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더욱 키우고져 생활속에서 함께할 도심속에 포교원을 개원하여 중생의 복밭이 되며 생활속에 지친 불자들의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약속할 도량이기를 발원하옵고

평소에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적은 없으셨습니까?
보은사 울산 포교원 통명정사로 오십시요!
쉽고,재미있게 자비로운 부처님곁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기초교리, 생활요가

개원일 2007년 8월 11일(토) 오전 10시

요일	강의내용	시 간	대 상	비 고	강 사
월	불교 기본 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도량석,종성,예불,불공3개월	석원범
화	기초예절,기초교리 및 사찰 건축물의 이해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수	"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목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금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토	불교제반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재의식,임종염불,방생,일반법회6개월	석원범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전 화 : 052)247-8883 / 052)238-8819 / 휴대폰 : 010-4554-1412



청안 스님 (예천 용문사 주지)

공덕 창고 비었는데 행복 바라는 건 잘못

천재운소(千災雲消)
만복운흥(萬福雲興)
모든 재앙 구름이 사라지듯 하고
만복은 구름 일 듯 하여라.

장맛비가 멈춘 7월의 어느 하루, 소백의 준령들이 손바닥에 펼쳐든 그림처럼 명징하게 다가 왔다. 천년고찰 용문사 경내는 그 그림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맑고 푸른 '용의 눈동자'였다. 1984년 큰 화재를 입은 뒤 오늘날까지 중창불사가 이어지고 있는 용문사. 불사의 막바지에서 청결하고 단아하게 정리된 용문사에는 지정문화재만 315점이 있다. 절이 그대로 박물관이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성보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주지 청안(淸岸) 스님이 "기념으로 가지라"며 전해 주는 족자 한 점. 거기 멋스럽게 적힌 여덟 자(字)를 대하는 순간 오전 내내 스님께 들은 법문의 의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바라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뿌린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씨앗 말입니다. 큰 씨앗을 뿌린 사람은 큰 행복을 누릴 것이고 작은 씨앗을 뿌린 사람은 작은 행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밤잠을 안자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놀 것 다 놀고 잠잘 것 다 잔 사람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다면 누가 더 잘 보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노력이라는 씨앗을 더 많이 뿌린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는 생각만 가득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허황된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씨앗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씨앗인지 알아야 뿌릴 수 있잖아요? 흘러 간 가요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구절이 있는데, 나는 행복의 씨앗은 공덕(功德)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덕은 바로 자신과 이웃, 자연환경, 나아가 우주 전체를 하나로 사랑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공덕은 바로 만중생이 함께 행복해 지는 힘인 것입니다.

공덕은 쌓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절에 잘 안 오던 사람이 자식이 수험생이 되니까 열심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평소의 공덕 창고는 비었는데 일이 닥치니까 창고를 좀 채워 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자식이 원하는 대학 못가면 부처님이나 스님 원망할까 겁이 날 지경입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덕을 짓는데 매 순간 꾸준히 힘쓰는 것이 불자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 용문사에는 전국 사찰에서 유일하게 윤장대(輪藏臺, 보물 제684호)가 모셔져 있습니다.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보관하는 기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겠다고 서원 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도 매우 큽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위대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입각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위해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입니다. 공덕을 쌓아 행복을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나의 공덕이 나의 행복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행복으로 승화될 때 자비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불자는 반드시 나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나의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비의 실천이 간절하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참선이나 염불 사경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먼저 길러야 참다운 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나의 노력으로 남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면 거기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보시 하세요. 누군가 "그런 사람은 하수인이고 뒤에서 갈취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동냥 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극한 마음을 내어 보시해야 합니다. 동전 하나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갈취를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대로 업보를 받을 것이니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눈앞의 걸인을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을 보시하면 그 공덕은 바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물론 계산하고 따지는 것에 공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공덕을 짓는 데는 무주상(無住相)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외되고 불행한 이웃이 바로 자신의 복밭입니다. 그 복밭에 많은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간의 세상은 물질의 차원에서 정신의 차원으로 가치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도 물질에서 정신의 차원으로 확장 되어야 합니다. 시주물의 가치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좋은 생각하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에는 탐욕과 분별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점점 연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하니 그것이 바로 공덕의 근원이고 행복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산승이 방금 행복한 삶의 씨앗은 공덕라고 말씀 드렸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성불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글 · 사진=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청안 스님은 10여 년 전, 영화배우 한석규씨와 한 스님이 대숲을 거니는 장면의 이동통신사 광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광고 속의 스님이 예천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이다. '그것도 포교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광고 촬영을 했는데 일약 '스타'가 되고 보니 너무 번거로운 게 많았다. 9년 전 예천 용문사로 내려온 뒤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청안 스님은 청년 시절 '답'이 없는 번민과 고뇌를 짊어지고 출가 입산하여(25세 때) 10여 년을 보내고 난 뒤에야 인생의 '큰 일'이 무엇인지 짐작되는 바가 있어 녹원 스님을 은사로 '제대로' 득도했다. 1984년 불길에 휩싸여 대부분의 전각이 타 버린 용문사. 청안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기 전에도 중창 불사가 진행 됐지만 아직 할 일은 태산이었다. 청안 스님은 용문사 중창에 일생을 회향하기로 발원했다. 지난 9년 간 경내 정비공사가 이뤄졌고, 전각들이 복원됐으며 성보박물관도 새로 지어져 용문사의 사격이 산뜻해졌다. 영남제일강원을 복원하고 템플스테이 문화체험프로그램 등도 운영 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스님의 중창 불사 원력은 그침이 없다.

선지식을 찾아서 청안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충청도 : 019-396-1110
서울 · 경기 : 02)456-8831
충청도 : 019-396-1110

현대칼라지붕공사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한암 스님(1)

경허,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 무슨 소리냐?

한암,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瓦墻)'이 앞에 있습니다

1899년 경허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 북서쪽 20km 지점에 위치한 수도산의 청암사 수도암에서 머물렀다.

그때 26세의 한암 스님은 51세의 경허 스님을 처음 만난다. 이곳에서 한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만일 모든 형상 있는 것이 형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금강경> 4구게 법문을 듣고 안광(眼光)이 홀연히 열리면서 한눈에 우주 전체가 환희 들여다보이는 체험을 한다. 얼마 뒤 수도암에서 몇몇 수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경허 스님이 일동에게 질문했다.



"어떤 수좌가 '어떤 것이 참으로 구하고 참으로 깨닫는 소식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운문이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南山雲起 北山下雨)'고 답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한암 스님이 대답했다.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瓦墻)'이 앞에 있습니다."

경허 스님은 그 다음 날 법상에서 여러 수좌들을 보고 말했다. "중원(重遠: 한암)의 공부가 개심(開心: 지혜가 열림)을 넘어섰다."

'남산에 구름' 공안이 나온 원래의 문답은 다음과 같다.

"옛 부처(古佛)와 법당의 기둥(露柱)이 서로 교섭하는데 이게 무슨 작용인가?"

아무도 대답하는 이 없자, 운문 스님이 스스로 말했다. "남산에 구름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 공안에서 '고불(古佛)'은 오래 묵은 불상이요, '노주(露柱)'는 법당 앞의 돌기둥이니, 모두 만 가지 법(法)의 하나이다. 동시에 고불은 본래부터 부처인 각자의 자성(自性), 즉 자각의 주체인 불심을, 돌기둥은 현상 경계의 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론 '옛 부처'를 성인으로, '돌기둥'을 범부로 볼 수도 있다.

고불과 노주가 교섭하는 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주관(心)과 객관(境), 부처와 중생이 상즉상입(相卽相入)하여 작용하는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닌(不二不一)' 중도제일의(中道第一義)를 요달해야 한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문자풀이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언어와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한 경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산과 북산이란 서로 다른 공간, 구름 일고 비 내리는 시간적인 전후를 초월하여 묘한 작용을 드러낸다.

고불은 佛心·노주는 사물을 상징

"남산 구름·북산 비는 모두 空한 것"

그러나 시간과 공간, 사량분별을 초월한 공(空)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인 색(色)의 세계와 다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공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 그대로 공인 것이다(色卽是空 空卽是色).

그래서 한암 스님은 "창문을 열면 담장이 보인다"며,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山是山 水是水)'인 소식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불과 노주, 남산의 구름, 북산의 비는 물론 눈앞의 담장 역시 우리 눈에는 역력한 것이지만, 모두 자체성이 없이 연기(緣起)되어 나타난 현상이기에, '토끼 뿔', '거북 털'처럼 공한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이뭣고?'는 자신의 본래면목이자 실상"

거사선의 리더들 ⑥

바라밀선원 **능허** 선원장

7월 22일 이른 아침, KTX를 타고 달려간 김해시 장유면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 황후의 남방불교 전래설을 간직한 불모산(佛母山)이 우뚝한 곳이었다.

그 아래 자리 잡은 바라밀선원(055-314-0116)은 여느 시민선원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법당 선방 사무 공간 등을 갖춘 도량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학원 이사장을 지낸 정일(正日 · 1932~2004) 선사로부터 인가받은 선원장 능허(能虛 · 53) 거사가 직접 화두참구를 지도 · 점검한다는 점이 달랐다.

특히 능허 거사는 재가자는 물론 스님들과의 법거량도 마다하지 않아서 선객(禪客)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터였다. 지난 달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라는 구도기를 펴내 더욱 입소문을 타고 있는 그로부터 수행담을 들어보았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능허 거사는 무역업으로 한 때 풍요롭게 살았지만 IMF사태를 맞아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내의 권유로 마음고생을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부처님께 매달리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 정일 스님을 만나 '무(無)자' 화두를 받고 참선에 입문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참선 외에는 따로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용맹정진한 지 불과 1년 만에 "나의 본래면목이 바로 청정법신비로자나불"임을 깨쳤다고 한다.



>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을 때
> '이~'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놈이 무엇인지
> 그 주인에 대해 회광반조(回光返照)하라

그러나 정일 스님은 "여래를 보았지만 조사선(祖師禪)의 차별지(差別智: 가지가지 공안을 투과하는 지혜)를 뚫어야 한다"며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화(婆子燒庵話) 두 공안을 통과하라"고 점검해 주었다. 그는 다시 정진을 계속, 비로소 3년 만에 관문을 뚫고 "조주여, 천 년 살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버렸구나"라고 힘차게 소리쳤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곧바로 정일 스님으로부터 면밀히 공안으로 점검받은 후 "눈 밝은 사람은 속일 수 없구나. 부처님도 이러하고 역대 조사도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고 자네 또한 이러하기에 전할 수 없는 법을 전한다"는 말과 함께 인가를 받았다.

2004년 귀향, 바라밀선원을 열어 본격적으로 간화선 대중화에 나선 능허 거사로부터 '이뭣고?'를 중심으로 화두공부의 요체에 대해 인터뷰했다.

– '이뭣고?' 란 한 마디로 무엇인가?

'이뭣고?'와 '무(無)'는 그대로 드러난 구(句)이다. '이뭣고?'라는 놈은 밝기가 광명보다 더 밝고, 어둡기는 칠흑 보다 더 어두운 바로 그놈이다. 부처님 마음자리이자 각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자 실상(實相)이다.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을 때, 공부 요령은?

'이뭣고?'할 때 '이~'하면 곧바로 본심이 드러난다. 이때 안으로 비추어 보면 자신이 본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의심만 뒷받침해 주면 된다. 안으로 자꾸 비추어 보면 자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심이 따라붙어야 함에도 도무지 의심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놈이 무엇인지, 그 주인에 대해 회광반조(回光返照)하라고 일러주건만, 그 알음알이 때문에 잘 안 된다. 천만 가지 망상이 바글거리다가도 '이뭣고?' 언구만 바로 지어 들어가면 일체망상이 붙지 못한다. 일체 공안을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

–조사선에서 말하는 일구(一句)란?

일구(一句)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곧바로 가리킨 말이다. 일체 번뇌가 없는 자리를 가장 가깝게 표현했다고 하여 일구라 하지만, 절대적인 경지는 언어를 통해 가르칠 수 없다. 진언(眞言: 진리의 말)은 불출구(不出口: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이기 때문이다.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는 방편, 즉 이구(二句)가 된다. 일구는 가불(假佛: 형상과 명칭, 개념 등의 거짓 부처)을 때려 부수는 소식이다. 가짜 부처를 때려 부숴야 진불(眞佛: 법신불, 참마음)이 나타난다.

–평상심이란 어떤 심적 상태인가?

일구(一句)가 평상심이다. 번뇌 없이 생활하는 도인들의 일용지사(日用之事)는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금강경> 첫머리에 나오는 여시아문(如是我聞: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 부좌이좌(敷座而坐: 자리를 펴고 앉다)까지가 그대로 일구이며 평상심의 도리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 보이신 일거일동이 그대로 선(禪)이다.

–여래선과 조사선은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여래선의 도리로서 체(體)와 용(用)을 나타낸 것이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중생이 어리석어 바로 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손가락에 매달리는 허물이 있다.

하지만 본뜻은 여래선과 조사선이 둘이 아니다. 방편 밖에 따로 전한 격외(格外)의 도리인 조사선이 차별지라면, 여래선은 평등지(平等智)가 된다.

조사선에는 최초구(最初句)와 말후구(末後句)가 있는데, 말후구는 격외의 소식이라서 완벽히 화두를 투과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

–깨닫고 나서도 '이 뭣고?'는 깨닫기 전과 같은가, 다른가?

'이뭣고?'는 깨달아도 '이뭣고?'이다. 그러나 할(喝)!

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단기출가 수행**=평창 월정사는 9월 13일~10월 12일 한 달 동안 삭발염의 하고 예비승려인 행자생활을 체험할 제147기 단기출가 수행자를 모집한다. 8월20일 접수마감. (033)332-6664

●**염불삼매 체험 집중수련**=법왕정사는 8월 3일(금)~5일(일) 2박3일간 청견 스님의 지도로 염불삼매 체험 집중수련회를 갖는다. 염불선교육, 예불, 좌선, 행선, 법문, 점검 등으로 진행. (051)583-7886

●**근본불교수행 강좌**=미얀마선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근본불교수행 무료강좌를 개설한다. 원장 산디마 스님의 <초전법륜경> <무아경> 및 12연기 강설과 위빠사나 수행 등으로 진행. (02)762-5302

●**자애관 수행**=과천 보리수선원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자애관 수행을 실시한다. 위빠사나 초급반 수행은 8월 6~17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에 진행. (02)517-2841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직업, 사업, 재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가장 본질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불교적으로 일체는 내 마음의 투영이요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다. 즉 완전이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가치의 완전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외면해야 하는 것, 즉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것을 당신은 '빙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떼어버려야 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일체가 부처님의 자비요, 버릴 곳은 또한 어디인가?
당신의 고통을 빙의(귀신 붙음)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에게서 불필요하고, 버려야 하는 것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당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될것입니다.

Namastte!!! 당신의 내면의 빛을 경외하면서!!!

무병으로 인한 고통, 빙의(신들림) Solution-er :

효경 010-3686-5735
http://cafe.daum.net/journeyofsoul

시련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㉕ 마음 속 부처님의 미소

빚 독촉에 시달리다

L씨는 몇 년 전 남편이 숙환으로 먼저 가고 나자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근처 건물에 자리를 하나 내 주며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옷가게를 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 곳은 위치가 좋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일 년 후에는 다 갚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만 믿고 가게를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운영해 보는 가게라 경험이 없어 모든 것이 힘들었다. 1년이 지났으나 이익은커녕 가게 임대료도 간신히 내는 형편이 되었다. 매달 들어가는 비싼 이자는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당장 그 큰돈이 생길 데가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L씨가 부탁했다.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건 댁의 사정이고, 내 사정은 어떡해요? 나는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야." 은근히 협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그렇게 돈 갚기 어려우면 또 빌려서 갚으면 되잖아요." "네? 또 빌리다니요. 지금 이자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요."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런 거요. 일수 대출하는 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일수요?"눈 앞이 캄캄해졌다. 처음부터 인심 쓰며 돈 빌려주고 가게를 시킬 때 이런 계산이 있었구나! 여기가 잘 안 나가는 것을 알고….

마음의 힘 기르기

그 때부터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협박하듯 독촉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가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었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두렵고 무섭기도 했다. 매일 속이 탔다.

> 남편과 사별후 돈 빌려 가게 개업
> 낮은 수익과 빚 독촉으로 큰 시련
> 마음의 힘 기르며 힘들어도 '미소'

절에 가서 울었다. 스님은 "당장 끄달리는 것부터 좀 벗어나야 장사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배울 것은 그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니라 마음 속 부처님께서 듣는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마음을 고요하게 깊이 집중해야 한다. 바다에 비유하면 마음을 파도치게 하지 말고 바다 밑바닥에 닿듯이 깊이 가라앉히라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부터 하라고 했다.

처음엔 어려웠으나 L씨는 열심히 해 보았다.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 달이 지나가자 뭔가 든든함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돈 내놓으라는 재촉을 또 어떻게 견디나…. L씨는 한숨이 나왔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그를 만나 거친 말을 들으며 배운 대로 계속 마음속으로 듣는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말 좀 해 보라고, 언제 줄 거야!"라고 해도 당황되지 않고 침착하게 답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을 시달린 후 나오는데 놀랄 일이 생겼다. L씨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른 것이다. 상대는 L씨의 얼굴을 보더니 "이제 아주 미쳤군, 미쳤어. 이 마당에 웃음이 나와?"하고 소리쳤다.

부처님의미소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다. '이상하다. 이 힘든 와중에 왜 이러지' 하며 '이건 도저히 내가 짓는 미소가 아닌데….' 하고 생각했다.

그 길로 절에 가니 스님은 "그게 바로 보살님 속에 있는 부처님의 미소이고 힘입니다. 이제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일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파도 한 조각으로 살지 마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항상 끄달리는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세요."

L씨의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제 마음속에 든든한 자성(自性)부처님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마음이 힘이 무엇인지 느끼며 부지런히 키워가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 **월봉사 여름불교학교 영어교실**=울산 월봉사가 8월 6~10일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강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월봉사 여름불교학교 영어교실은 어린이 영어전문 강사를 초빙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명상, 다채로운 불교문화 체험 활동도 마련되어 있다. (052)251-4602

● **미황사 여름한문학당 2차**=해남 미황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2차 '2007 여름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8월 8~15일 7박8일 동안 미황사에서 머물며 한문도 배우고 불교문화 · 산사생활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원은 35명. (061)533-3521

● **조계사 '입시100!' 학업성취 특강**=서울 조계사가 8월 7일 김수현 식생활상담소장을 초청해 '수험생 여름철 건강관리' 특강을 개최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부법과 자녀 건강, 지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입시 100!' 학업성취 특강은 7월 31일 이석록 메가스터디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첫 강연을 했다. 10월 17일에는 이만기 UA중앙교육평가이사가 '수능 직전, 당일, 직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32-2183

● **제35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사)한국불교연구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자들을 대상으로 8월 3~5일 불교연수회를 실시한다.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35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는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다. (02)762-5624

● **교사불자연합회 수련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8월 4~6일 해남 대흥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불자 교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각 지부 및 지회나 홈페이지(cafe.daum.net/tbuddha)에서 신청하면 된다. (011)740-9494

● **은적사 어린이 숲속학교**=대구 은적사는 8월 2~4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속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숲속 여름학교에서는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053)653-1572

● **불교환경장학생 선발**=불교환경연대가 8월 15일까지 2007 불교환경장학생 선발작업에 나선다. 불교계 환경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불교환경장학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대학원생과 연구원 2명(각 500만원), 학부생 5명(각 100만원), 환경활동가 5명(각 100만원) 등 총 12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02)720-1654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⑥

'일일부작 일일불식' 선종의 핵심정신

(一日不作) (一日不食)

또한 자각종색의 <선원청규(禪苑淸規)>에도 "보청에는 요주(寮主), 직당(直堂)을 제외하고 모두 모름지기 가지런히(다함께) 부(赴: 나아가다)하라. 주지(住持)인이라 할지라도 질병, 관객(官客)을 제외하고 곧 부(赴)하지 아니하면 그 시자를 중(衆)에서 나가게 하라"(上同, p163.)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의 '보청' 조에도 역시 <선문규식>과 마찬가지로 "보청을 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마땅히 고인의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계(誡)를 생각하라."(<大正藏>제48권, p 1144上)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보청이란 백장이 설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정신 아래 전체 대중이 균등히 생산노동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은 선종의 노동에 대한 정의이자 수행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선종의 모든 노동과 수행의 근본정신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다.

백장청규의 핵심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백장 사의 평생의 고절(苦節)과 힘든 수행은 비유로 다 말할 수 없다. 대개 매일 실행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대중들보다도 먼저 앞장서 나아갔다. 이러한 모습의 선사를 주사(主事)가 차마 보고 견딜 수가 없어 하루는 가만히 선사의 도구를 감추고 쉬기를 간청하였다.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무런 덕이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스럽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선사는 두루 도구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자 그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食)'라는 말이 천하에 유행하게 되었다.(<祖堂集>제14권,<佛光大藏經>「禪藏, p724)

결국 백장의 보청정신에 의해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食)"라는 격언이 생겨났고, 이러한 정신은 청규정신으로 면면히 전승되어졌던 것이다. 여기서 백장은 노동을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신성한 의무이자 수행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런 정신과 사상은 결국 노동과 좌선을 일치시키는 '선농겸수(禪農兼修)'의 수행 가풍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위에서 우리는 선종의 노동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노동과 좌선수행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농겸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이 단순히 생산을 위한 작무가 아니라, 수행으로 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무가 개인의 노동에 국한된다면, 보청은 항상 위로는 주지(방장)로부터 아래로는 행자에 이르기까지 전대중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대중운력(大衆運力)으로 노동을 하되 노동상(相)에 집착하지 않고 철저히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선농겸수의 정신과 그 전승

사실 혜능으로부터 태동하여 마조의 홍주선에 이르러 만개한 조사선(祖師禪)사상이 생활불교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좌선과 노동을 함께 수행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혜능은 일찍이 좌선을 정의하여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坐)요, 자성을 보아 본성이 어지럽지 않음이 선(禪)"이라고 하였으며, "일체 시간 가운데 행주좌와에 항상 직심(直心)을 행하는 것이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주장하여 생활상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마조 역시 이른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생활선의 정신으로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조사선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좌선-노동의 일치' 가풍 후대에 전승

"마음은 道念·몸은 노동에 전념할 것"

조사선의 일상생활의 수행전개가 토대가 되어 백장이 선원청규를 제정하고 보청법을 시행하여 선종의 자주적 수행가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종에서 좌선수행과 노동생산을 일치시키는 것을 '농선(農禪)', 혹은 '선농겸수(禪農兼修)'라고 칭한다. 좌선수행과 노동생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활일과로서 선종의 가장 선종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농겸수'의 선종 가풍은 이후 선종의 가장 중요한 실천덕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면면부절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위에서도 대강 언급한 바 있지만 선농겸수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은 선원청규에 의한 보청법의 실천에서 그 의미와 정신을 엿볼 수 있겠다. 백장의 '고청규(古淸規)'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환주청규(幻住淸規)'의 보청에 대한 설명에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다.

혹시 보청에 있어 노동에 임할 때는 일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힘을 다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좌선수행에 집착하여 적정함을 간직하기 위해 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에 임할 때는 소리내어 농담을 하거나 큰소리로 웃어도 안 되며, 남보다 뛰어남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단지 마음으로 도념(道念)을 보존하고 몸으로는 대중과 함께 노동에 전념해야 한다. (계속)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반듭니다.



422 로채Q(황토흙)



304 목련Q(음수옥)



424 비토Q(황토흙)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방학이 벌써 열흘 남짓 지나갔다. 아직 시간이 많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휙' 지나가 버리기 쉬운 때가 바로 방학이다.

요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방학도 없다고 한다. 그래도 아이들이 방학에 열광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학교에서 떨어져 머리를 식힐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너무 놀기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름방학이 가져다 준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텔레비전, 인터넷, 비디오게임 등 뻔~한 휴식은 저만치 밀어내고. 시간이 지나고서야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일단 나가자. 방학의 여유로움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좀 더 값진 법이다.

뻔~한 방학은 가라! 보고 즐기며 알차게

'제주국제관악제' 들으며 이국적 정취에 '풍덩'
아이들과 함께 뛰고 즐기는 이솝빌리지 '신나'
부모님 손 잡고 농촌체험 어느 방학 보다 알차

부산 바다축제

신나는 바다축제로 Go Go~


오르세 미술관전에서 만날수 있는 마네의 '피리부는 소년'.

바다하면 부산, 부산 하면 바다. 올해도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서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해운대 · 광안리 · 다대포 · 송도 · 송정해수욕장 등에서 동시에 열리는 '부산바다축제'가 있어 더욱 즐겁다. 이 축제는 올해로 12년째로 바다축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8월 1일 해운대 개막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문화제, 록 페스티벌, 달맞이언덕 철학 축제, 어린이 요트경기대회 등도 함께 치러진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바다축제도 함께 열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여름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바다축제는 장소와 시간을 잘 알고 가는 것이 관건. 홈페이지(www.seafestival.co.kr)에서 확인하자.

포항 불빛축제

단정한 도시 포항의 바다는 시원하다. 그러나 그 밤만큼은 화려하고 뜨겁다. '포항 불빛축제'가 포항 바다도 보는 사람도 모두 환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8월 4일까지 펼쳐지는 이 축제에서는 한국 · 일본 · 프랑스 · 포르투갈 등 4개국 6개 팀이 화려한 불꽃을 만들어 포항의 밤하늘을 연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쇼, 분수 쇼 등도 함께 진행돼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또한 가족행사로 8월 2일 마련된 '두껍아두껍아 집짓기'를 통해 아이들과의 화합을 다져볼 수도 있다.

불빛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해병문화축제에서도 볼거리가 많다. 평소 보기 힘든 군악대 연주와 인명구조 시범, 해병대 타악동아리 공연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주여성 모국 음식만들기, 바다국제연극제, 전국초등유소년 야구대회 등도 포항 불꽃축제 속 행사들이 이어 등 가족단위 행사가 많이 준비된다.

북제주군 금능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변축제인 '한수풀 해변축제'도 있다. 인근에 협재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특히 깨끗하며 얕은 수심으로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8월 4일~13일까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변가요제 등의 축제가 열린다.

조금 더 특이한 행사를 찾는다면 올해 10회를 맞이한 '제주국제관악제'를 주목해보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 중국 · 대만 · 말레이시아 · 덴마크 · 독일 · 러시아 등 세계 우수한 관악단이 대거 참가하여 아름다운 관악의 향연을 이뤄낼 것이다. 초등학생 합주경연대회, 관악기 전시 등도 마련된다. 8월 12일~20일까지 계속되는 관악제의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홈페이지(www.chejusb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르세 미술관 전

이 전시 공연 주목~

이미 너무나 알려진 전시지만 폐장일자가 다가오고 있다. 유명박물관의 국내 전시회에 가면 "유명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오르세 전만큼은 좀 다르다. 도록에서나 봤음직한 작품들을 꽤 만나볼 수 있다.

밀레의 '만종'을 비롯해 세잔, 마네, 고흐 등의 인상파 화가들의 명작들이 줄을 서 있다.

게다가 전시작품에 대한 어린이와 어른의 맞춤교육도 있다.

전시기간은 9월 2일까지며 장소는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단, 교육은 8월 31일까지만 진행되니 이왕이면 놓치지 말자. 교육 시간과 미술작품 예습은 홈페이지(www.orsay2007.co.kr)를 참고하자.

야단법석 이솝빌리지

뮤지컬 공연 중에 아이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간다면 그것은 '사고'다. 그러나 '야단법석 이솝빌리지' 공연에서는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관객의 반응에 따라 그 때 그 때 결말이 달라진다.

특히 유치원생 정도라면 이솝빌리지의 무한상상세계 속에서 뛰어놀아보는 것이 무척 재미있을 것이다. '이솝빌리지'는 말 그대로 이솝 우화에서 막 뛰어나온 것 같은 다양한 동물 · 곤충 출연진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무대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

제주도도 즐겨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국적이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땅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답게 수많은 해수욕장이 있다.

먼저 검은모래찜질로 유명한 삼양해수욕장은 올해 '제6회 삼양검은모래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8월 3일~4일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장어잡이, 가족모래성 만들기, 어린이 합기도 및 태권도 시범, 서각 전시, 어린이 수영대회, 재즈 페스티벌, 불꽃놀이, 캠프 화다. (054)270-2114

'이솝빌리지'는 서울 웅진씽크빅 아트홀에서 8월 26일까지 계속된다. (02)738-8289

가족들과 함께 시골체험?

휴가를 맞은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농촌마을체험 여행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이지만 땀을 흘려 채소나 곡식을 가꾸는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농촌체험으로,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래프팅 체험으로 골라 갈 수 있는 재미도 있다.

현재 각지에서 농촌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이며, 특히 전남 곡성 · 경남 통영 · 강원 평창 등지의 정보화마을이 인기가 높다. 좀 더 가까운 곳을 원한다면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사이트(tour.invil.com)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에서는
인격의 기초가 되는 성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유아 성교육을 위해 '얘들아~ 마법의 성(性)으로 놀러와'를 마련한다. 7세 유아 12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8월 8~9일 진행된다. (02) 338-7480

서울 북촌과 인사동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주최로 전통놀이 및 놀이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북촌, 인사동 탐방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02)723-6165

강원도 횡성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대자연속에서 트래킹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공동체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협동심과 이해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8월 15~17일 '나를 찾아 떠나는 트래킹'이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4학년 이상의 저소득층 청소년이다. (02)488-1728

전남 순천에서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강가에서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2007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열린다. 8월 2~3일에는 동천보트장에서 퓨전국악, 시립극단 연극 및 소년소녀합창단 등의 공연이, 8월 6~7일에는 상사댐에서 색소폰, 성악, 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8시부터.

서울 목인박물관에서는
8월 19일까지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표정이 있는 나무들'을 계속한다. 이번 전시는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전통문화와 예술을 조금 더 친근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02)722-5066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뜨거운 여름을 견뎌야 가을이면 밤나무든 상수리나무든 아람을 선물하겠지요. 여러분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힘든 것 잘 견뎌내고 있겠죠?

칠칠하다: 세 가지의 뜻이 있으니 잘 구별하세요. 1)나무, 풀, 머리털 따위가 잘 자라서 알차고 길다. (나는 아직 열여섯이라 마님에게 귀염을 받는 것이 다만 좋았고 칠칠한 나물을 뜯어 드리고자 한사코 이 험한 산속으로 기어올랐다.)<김유정, 산골> 2)주로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인다.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부월이는 아직도 칠칠치 못한 속옷 차림인 채 방 안의 아랫목과 윗목 사이를 연락부절로 서성거리면서…)<윤흥길, 완장> 3)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인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그 댁이 큰댁의 기둥인데 장가를 열 번 들면 그만큼 칠칠하고 일새 빠른 사람을 구경이나 할 줄 아오?) <심훈, 영원의 미소>

아람: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흔들지도 않는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황순원, 학> 비슷한 말로 '알밤'이 있어요.

물마루: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것처럼 멀리 보이는 수평선의 두두룩한 부분. (창룡호는 멀리 거친 파도로 울퉁불퉁한 물마루를 넘느라고 몹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고향 떠나는 한 부부의 애틋함 나타내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태준 作 '촌뜨기'

이태준의 '촌뜨기'는 단편 소설이며 농민 소설입니다. 1934년 3월 <농민순보>에 발표된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시골 산마을에 사는 '장군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며 공간적 배경은 안악골, 화전민 마을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수탈은 극에 달하여, 대부분의 논밭은 물론 산까지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 지주들은 몰락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소작농을 하던 사람들 마저도 땅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장군이는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짐승을 잡고 숯을 구워 생계를 꾸려가던 순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삶의 터전이라 할 산을 잃고, 게다가 생계 수단이던 모든 일(화전, 숯, 사냥 등)을 못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물방앗간을 차리지만 그것도 발동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지요. 게다가 빚까지 지게 되지요. 즉, 일제의 수탈과 문명의 발전으로 장군이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도 명예퇴직 · 정리해고 · 부도 등으로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정황을 소재로 삼은 소설도 나오고 있지요. '생계의 상실'이란 상황에서 '인간'을 그려보는 겁니다.

장군이라는 인물은 안악골, 화전 마을의 젊은이로 현실에 불만이 많은 불끈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나 아내는 얼굴이 못생긴 순종형의 여인이지요. 강원도 사투리의 특징과 순박한 농민의 모습이 잘 나타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에요.

장군이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안악골 꼭대기에 있는 오막살이에서 잘 생기지도 않은 아내와

단편 소설이며 농민 소설
삶의 터전 잃게 되는 경우
현실과 연결 지어 보세요

단 둘이 화전을 일구며 숯을 굽고 산짐승을 잡아 연명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 주인이 삼정회사로 바뀌면서 화전은 물론 사냥이나 숯을 굽는 등 지금까지 생계 수단이 되었던 모든 일을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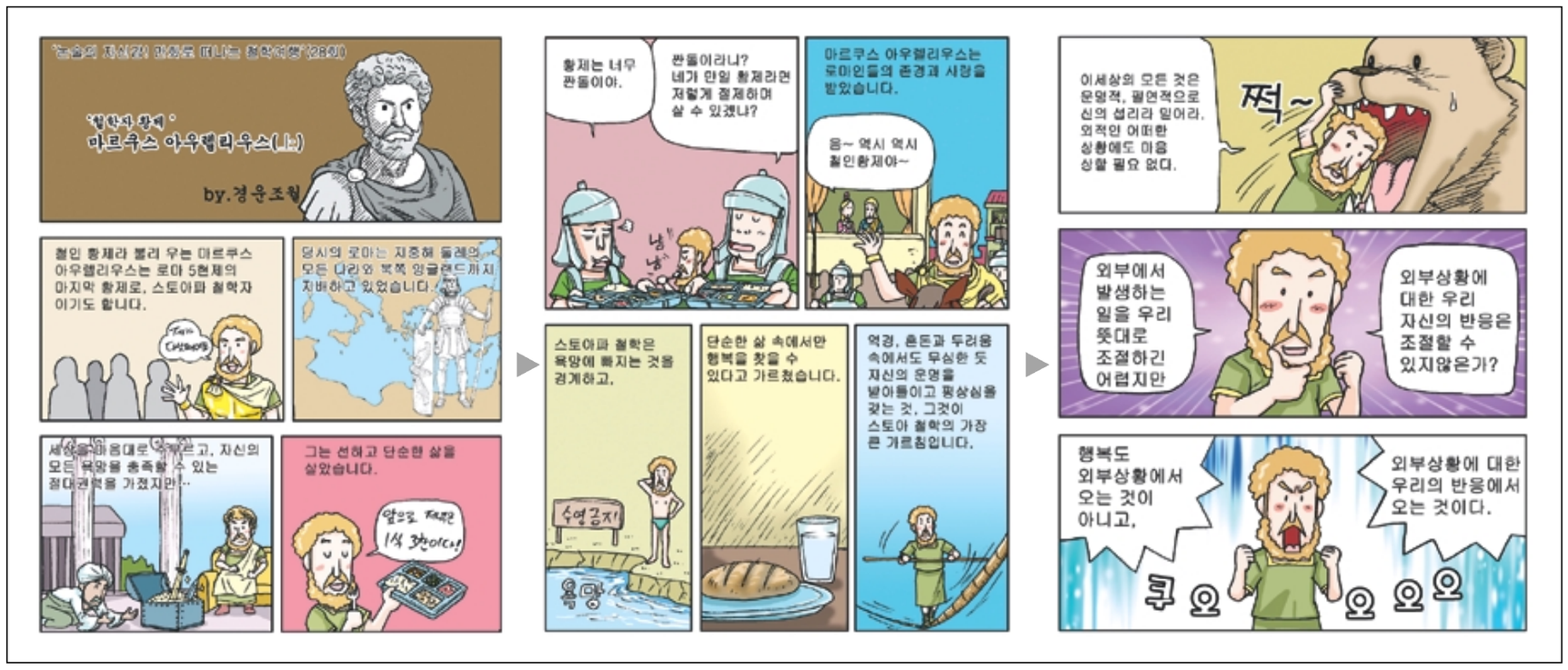
그는 하는 수 없이 빚을 얻어 물방앗간을 개설하려 했으나 다 완성하기도 전에 마을에 발동기가 들어와 그 일도 실패하고 빚만 지게 된다. 그런 장군이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친다. 사냥을 나온 순사부장이 바로 장군이가 짐승을 잡으려고 파 놓은 구덩이에 빠져 다치게 된 것. 이 일로 장군이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뺨이나 몇 대 맞으려니 했던 것이 2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히게 되지요.

장군이는 유치장에서 나가면 마을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아내는 당분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은 도시로 나가 돈을 벌어 농사지을 밑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장에서 나온 이틀 뒤, 장군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난 후, 아내는 친정으로 향하고 장군이는 읍내로 향한다. 그러나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 다시 아내를 부른 장군이는 아내를 읍내로 데려가 떡을 사 먹인 후 헤어진다. 이 대목에서, 비록 못생기고 밉기만 한 아내이지만 그녀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정이 잘 묘사되고 있다.

이태준은 서정적 소설을 많이 쓴 작가로 알려져 있지요. 게다가 흔히 상고주의라 일컫는 과거로의 회귀, 혹은 옛 것에 대한 미련을 잘 그려낸 작가이지요.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가난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여 미래를 꿈꾸는 한 농민의 모습을 그려 내면서 그 안에 따뜻한 부부의 정까지 담고 있지요.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한 부부의 애틋한 정을 나타내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농현상으로 빈집이 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요즘의 고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요즘 우리 현실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세요. 빈곤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화를 잘내요. 어떻게 하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기엔 누구나 화가 잘 난다고 하지만 저는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아무렇게나 그러진 않지만 속에 눌러 담고만 있으니 병이 날 것 같아요. (ID:midsarang)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부처님 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가 날 때 바로 터뜨리지 말고, 자비심으로 화를 감싸 안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니지요. 지금 막 내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데, 이를 어떻게 터뜨리지 않고, 속으로 꾹꾹 눌러놓지 않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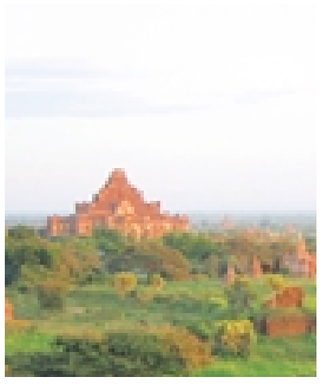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마음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지요. 가난해도 자기 힘껏 보시를 베푸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자면서도 인색해서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 쓰는 것으로 바꿔봅시다. 내 마음에 자비로움이 넘친다면 웬만큼 센 분노가 일어나려고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와 여유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메말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메마른 마음에 자비라는 감로수를 적실 수 있을까? 이것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함께 갑니다. 몸을 편안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에 따라 마음도 너그럽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실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틱낫한 스님의 <화>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세요.

(서울 옥천암 중고등부 지도법사 운산 스님)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적극추천하는

미안마 성지순례

■ 미얀마의 종정 큰스님 친견 ■

부처님의 위신영이가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짜익티오에서의 대법회 봉행
예스굿투어가 최초로 개척한 성지!!!!!!!

◇ 짜이티사웅 파고다 방문 및 우 삔냐디바 큰스님 친견
(짜익티오:병마퇴치,병고액난소멸로 환희심이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

9.14 / 10.12 2회출발!
양곤-바간-헤호-짜익티오 7일

₩1,540,000원
(포함:탁발공양행사, 특급호텔,성지순례 입장료,인천공항세,출국세,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미얀마비자발급비, 미얀마 공항세, 미얀마샤브샤브)

* 예스굿투어는 수익의 10%를 미얀마의 한국기술종합대학교 운영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예스 굿 투어
tel: 02-365-7747 fax: 02-365-2994

'하늘天, 땅地…' 천자문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숨어있네



이야기천자문
천명일 지음
지혜의 나무 펴냄 | 2만5000원

"'천(天)' 자를 파자로 풀면 '一大'가 된다. 큰 대(大)자를 파자로 풀이하면 숫자 육(六)이 된다. 따라서 천(天)자는 일(一)과 육(六)이 되는 셈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1과 6을 '수(水)'라 한다. 수소분자의 모양도 육각이다. 참으로 하늘은 수소가스로 가득하지 않은가?"

한자를 음과 훈, 또는 모양으로 나누어 그 한자가 제시하는 본연의 뜻을 찾아내 불경과 더불어 마음 다스리는 천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 천자문>이 나왔다.

우선 이 책이 기존의 <천자문> 해설서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천자문>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번 해설은 한자가 연원적으로 본래 우리글이었음에 착안하고 있으며, 한자의 모양을 주의 깊게 보면 그 문자가 상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기획 취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천자문>의 해설을 인류의 본질 문제와 항상 연결해 한자 한자 풀어가고 있다. 때론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해 <천자문>을 풀이하기도 한다.

김주일 기자

사람과 자연이 있는 山寺 풍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지현 지음|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원

"어제는 삼천배 철야정진 입재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정진에는 아랫마을 사시는 80대 노보살님이 동참하셨다. 절하시는 모습이 내내 힘들어 보였으나 보살님은 쉬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향해 절하시는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움을 담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80노보살님의 삼천배中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오랫만에 책을 냈다. 3년동안 청량사에 머물며 마주친 사람들과 자연에 대한 단상을 붓가는 대로 쓴 수필집이다. 지현 스님이 오랜 세월 청량산이 전하는 무정설법을 들으며 청량사에 머물렀기 때문일까? 스님의 글은 청량산을 닮아 있다. 청량사의 바람소리, 쏟아질 것 같은 별 빛, 산중에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법고 소리가 스님의 펜과 만나면 영롱한 시어로 때로는 깨달음의 법문으로 또 세태를 꼬집는 날선 언어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책은 '사람이 있는 풍경' '끝없는 이야기' '생의 한 순간' 등 3부로 구성됐다. 지현 스님은 청량사의 사계중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한여름이지만 책 표지를 눈쌓인 청량사의 모습으로 장식했다.

책 내용중 '눈이 내린다'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새벽에 눈이 내린다. 눈은 그저 내릴 뿐이고 그리하여 고요해질 뿐이다"라며 적막한 산사의 겨울을 선(禪)적으로 표현했다.

지현 스님은 "제목이 주는 의미는 구도의 길과 수행의 길이지만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산사의 모습과 인간 군상들을 수채화식으로 풀어내 2시간 정도면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틈틈이 찍어 놓은 청량사의 사진들도 곁들여 놓아 읽는데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3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5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6	불교란 무엇인가	우룽	효림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9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10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현대불교 후원계좌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

40% 파격 할인 판매!



올 여름엔 禪書 삼매경에 풍덩 빠져보세요~!

■기간 7월16일~8월 17일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할인가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정가 1만3000원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아냈다. 또한 전법 현장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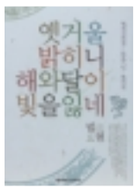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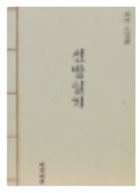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서옹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를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지음

정가 6000원 →할인가 3600원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서.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개-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키듯, 남전의 고양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신고 등 46편의 글을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꾹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시(禪詩)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 허응당 보우 - 선의 마음 시의 마음,청허당 휴정 -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 -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02)737-0695 book.buddhapia.com

■예금주 : (주)에이치비엠씨 <농협> 053-01-269062

'한국현대시 100년' 등 행사 풍성

2007만해축전, 8월 11~13일까지 만해마을서
만해상시상 · 국내외 시인 시낭송 · 학술행사 등



지난해 열린 만해축전 모습. 올해 축전에서는 국제 문학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시인이자 사상가, 승려이자 민족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07 만해축전'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제1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만해대상 · 유심작품상 수상자 시비 제막식, 시인학교, 고교생 백일장, 서예대전 시상식, 시조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만해대상 수상자는 엘하지 오마르 봉고 온딤바(72) 가봉공화국 대통령(평화부문), 시인 김남조(80) 숙명여대 명예교수(문학부문), 문학평론가 유종호(72) 연세대 석좌교수(학술부문), 루이스 R. 랭카스터(74) 前 버클리대 교수(포교부문), 네팔기자연맹(FNJ)과 회장 비쉬누 니스트리(실천부문), 서인혁(68) 국술원 총재(특별부문) 등이다.

이번 만해축전의 특별 이벤트는 올해 한국현대시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국제 문학행사다.

한국시인협회(회장 오세영)는 26일 "올해는 현대시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1908년)'가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현대시 100년의 역사를 자축하고 한국시인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제 문학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아시아 시인의 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문정희, 김종길, 김종해, 김광림, 예옌빈(중국), 사가와 아끼(일본), 쩨 바트바타르(몽골) 등 국내외 시인 20여 명이 참가해 시를 낭송한다. 이외에도 방민호(서울대 국문과), 박찬일(추계예술대 문창과), 박현수(경북대 국문과), 이가림(인하대 불문과) 교수, 미국의 데이비드 맥켄(하버드대 한국연구소장), 체코의 이바나 그루베 로바(한국시 번역가) 등 학계 인사들도 다수 참여한다.

13일 오전 10시부터는 만해마을 대강당에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시의 역할'을 주제로 한 문학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축사할 예정이다. (033)462-2304.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김창배 화백 '달마와 차묵화'展

웃고 춤추는 달마!



'깨달은 달마'.

근엄하기만 한 달마가 웃거나 춤을 춘다?

'춤추는 달마', '웃는 달마' 등 담원 김창배 화백만의 해석이 깃든 달마 그림이 선보인다.

김창배 화백은 '달마와 차묵화' 전시회를 인사동 중앙 미술관에서 8월 8일까지 연다.

1999년 <한국의 달마>를 펴냈던 김 화백은 8년 만에 달마도 300여 점에, 중국 소림사 풍경을 새로 가미한 <세상의 모든 달마>를 발간했다. 화첩 작품 중 '척리서귀 달마', '백의 달마' '깨달은 달마' 등 108점이 벽에 걸린다. 한편 김창배 화백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평화통일불사리탑에

'발굴에서 전시까지' 특별展
국립경주박물관, 9월 2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발굴에서 전시까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최근 발굴된 신라와 백제시대 유적지 17곳에서 나온 2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며 도성, 궁궐, 사찰, 생산시설, 무덤 등은 모형으로 복원돼 공개된다.

또 전시기간 경주박물관과 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이 신라왕경 유적의 발굴성과, 사천왕사지 발굴성과, 최근에 발굴된 신라 및 백제의 기와, 신라의 공방유적, 신라 및 백제 불교미술품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경주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발굴된 유물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전시는 최근 출토된 유물들로 구성됐다"면서 "발굴현장의 성과와 경험, 전시내용에 대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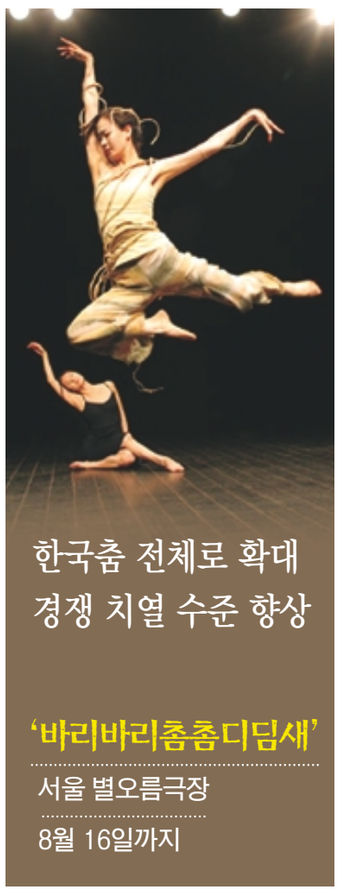
전국은 지금 연꽃 축제중

7월말부터 8월 중순 전국이 연화세계에 빠진다. 연꽃축제에서는 연꽃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려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화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 연꽃이 논두렁을 가득 채운 모습이 장관이다. 음악회도 열린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032)934-8484

△**무안 백련 대축제:** 전남 무안군 회산 백련지는 동양 최대 백련서식지. 이곳에서 8월 11일~15일 '무안 백련 대축제'가 열린다.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061-450-5226)

△**김제 하소백련 축제:** '백련, 빛과 색'이라는 주제로 전북 김제시 청운사에서 8월 30일까지 열린다. 청운사 남쪽 3만평 백련지에 흰 연꽃이 활짝 핀다. 청운사 도원스님의 불화전 등 전국 유명 예술인들의 전시회가 함께 있다.(김제시 문화공보실 063-540-3172)



한국춤 전체로 확대
경쟁 치열 수준 향상

'바리바리촘촘디딤새'
서울 별오름극장
8월 16일까지

하나의 주제 전통·창작춤 동시 공연

국립무용단(예술감독 배정혜) 신예들의 전통과 창작, 그리고 해설이 있는 춤무대 '바리바리촘촘디딤새 2007'이 8월16일까지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바리바리촘촘디딤새'는 '촘촘하게 내딛는 잦은 발동작'을 뜻하는 말로 예쁘게 솟은 버선발이 잦게 앞뒤로 움직이며 춤추는, 한국춤의 가장 아리따운 순간을 포착한 말 중의 하나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젊은 한국춤 무용가들이 한국 무용계, 나아가 세계 무용계에 내딛는 '바리바리촘촘디딤새'로 평가된다.

이 공연은 출연자가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 전통한국춤 작품을 하나 추고, 그 의미와 방식, 철학 등을 설명한 뒤 이를 응용한 창작춤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이론과 실제가 살아있는 젊은 무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춤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참여자를 국립무용단 소속 무용가들뿐 아니라 전체 한국춤 무용가로 영역을 넓히는 등 치열한 경쟁을 유도, 작품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8월1 · 2일 국립무용단 문창숙씨가 이매방류 살풀이의 내재된 신명을 시연, 분석한 뒤 창작춤 '그래도 세상은…' △4 · 5일 국립무용단 박기환씨가 봉산탈춤을 추고 이 탈춤의 유래와 연출 형식을 설명한 뒤 창작춤 '99일' △8 · 9일 리을무용단 김선영씨가 김숙자류 도살풀이를 추고 유래와 함께 살풀이에 남아있는 굿의 형식을 살펴본 뒤 창작춤 '무(巫)' △11 · 12일 태혜신무용단의 태혜신씨가 서울 새남굿과 이를 바탕으로 바리공주의 신화를 소재로 한 창작춤 '바리' △15 · 16일 류무용단 대표 유영수씨가 남성 한량무의 전라제와 경상제를 비교한 뒤 창작춤 '풍객(風客)의 몽환(夢幻)' 등을 무대에 올린다. (02)2280-4114



바리공주의 신화를 소재로한 전통 창작춤 '바리'.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⑱

운달산 금선암

장인성 시인

청산에 들면 숨소리도 푸르다
글참나무 몇그루
몸뚱이 속으로 옮겨 앉은 것 같다

청산에 들면 핏줄이 고요하다
정갈해진 몸 속에
법당 한 채 세울 자리 있을 것 같다



금선암(金仙庵)-원시림이 질푸른 운달산 정상에 자리한 단칸집 암자. 보이는 것이라곤 푸른 하늘과 푸른 숲 뿐인 완벽한 녹색 공간이다.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www.sungjongsa.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 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짝위치와 실제 당짝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짝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희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3. 하늘엔 구름 병속엔 물

몸은 연마하여 학과 같이 되었으니
鍊得身形似鶴形
천 그루 솔 밑 두어 권 경
千株松下兩函經
내가 도를 물으니 아무 말씀 없이
我來問道無餘說
푸른 하늘엔 구름 병 속엔 물
雲在靑天水在甁
–이고(李翺)

낭주자사 이고는 약산(藥山惟嚴, 745~828)의 덕화를 오래 전부터 듣고 흠모하여 산사에서 내려오셔서 설법하여 줄 것을 자주 간청했다.

그러나 약산이 끝내 하산하지 않자, 산사에 직접 찾아갔으나 선사가 경을 보면서 돌아보지도 않았다. 시자가 스님께 '태수가 왔다'고 아뢰었다.

약산이 미동도 하지 않자 태수는 성질이 나서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을 듣는 것 보다 나을 게 없군" 하며 무안을 쏘아보내자, 약산이 "어째서 태수는 귀만 귀히 여기고 직접 보는 눈을 천히 여기시오?" 하니, 이고가 약산에게 "어떤 것이 도냐?" 라고 물었다.

설법을 청하며 道의 정의 묻는 이고에게
약산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詩句 읊어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안에 있네"

약산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사가 이어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안에 있네."(雲在靑天水在甁)
(<선문염송>9권 335칙 '雲在')

도(道)를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알맞으며 미적인 시구로 즉시 읊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다. 이고는 이 아름다운 선계를 듣고 환희심과 수치심으로 뒤범벅이 된 채, 절을 하고 시를 지어 올렸다.

'송림 우거진 숲, 아무렇게나 짠 경상 위에 두어 권의 경전/그 앞 그림자는 솔가지와 솔잎, 조는 듯 일렁이는 바싹 마른 노스님/세속에 찌든 나, 도가 뭐냐고 물으니/푸른 하늘엔 구름, 병 속엔 맑은 물'

착어 : 그렇다. 누군가 빠뜨린 외짝 버선.

약산이 보여준 아름답고 매혹적인 선계 '운재청천수재병(雲在靑天水在甁)'에, 후세 선장들이 보고 읊은 게송 한 수를 음미하자. 또 그가 뒷사람을 위해, 죽음으로 펼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장을 마무리 한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으니
雲在靑天水在甁
눈빛 가리키는 곳마다 깊은 구덩이 일세
眼光隨指落深坑
개울물 거품은 추위의 고통을 못 견디어
谿花不耐風霜苦
깊은 바다로 간다고 은근히 속삭이네
說與深深海底行
–무진거사

착어 : 은근히 속삭이는 개울물 소리 듣지 말라. 저, 무진노인의 꼬드기는 소리야. 그저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네.

장엄한 낙조다.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죽음조차 입체적으로 펼치니, 790년 11월 6일 임종하기 직전 약산은 대중을 향해 외쳤다.

"법당이 쓰러진다. 법당이 쓰러진다."(法堂倒 法堂倒)

대중이 모두 기둥을 버티니, 선사께서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말을 한다.

"그대들은 나의 뜻을 모르는군, 모르는군…"(<경덕전등록> 제14권 '약산유엄선사')

활구법문을 마지막으로 입적한다. 수명은 84세. 법랍은 65세였다.

법제자로는 운암 담성과 선자 덕성, 도오 종지가 있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⑬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
이시영 | 창비,2007 | 6천원





불교…노동…인생의 재료로 빚은 詩

이시영은 194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같은 해 월간문학 신인문학상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첫 시집 <만월> 이후 모두 11권의 시집을 발간했다. 그는 초기에 짧은 운문시를 주조로 써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이야기가 담긴 짧은 산문시로 긴장과 인식에 이르는 독특한 시 어법을 창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단형산문시라고 부르고 싶다. 이번 시집에는 창작자가 후기에서 밝혔듯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기사에서 인용하거나 일화를 차용한 것들이 많다.

그의 시에 외국인 노동자, 수녀, 시인, 탐험가, 화가, 소설가, 정치가, 과학자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염소, 양, 펭귄, 다람쥐, 고양이, 거북이, 강아지, 삵, 야크, 고라니 등이 등장한다. 봄동을 비롯한 식물에서 음식, 레바논에서 카슈미르까지 외국의 지명과 전쟁과 정치 일화를 시에 차용한다.

시인은 이러한 인유의 방법을 통하여 환경, 생태, 정치, 인권, 노동, 연애, 인생을 주제로 드러낸다. 그리고 불교적 제재를 채용한 시도 몇 편 발견된다.

달라이 라마께서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중국의 한 감옥에서 풀려난 티베트 승려를 친견했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느냐는 물음에 승려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고 한다. "하마터면 저들을 미워할 뻔했습니다." 그러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승려의 두 손이 가만히 떨렸다.

–'친견' 전문

정치범으로 감옥생활을 한 승려가 자신을 억압한 중국 당국을 미워할 뻔했다는 것에서 성직자의 초월적인 용서와 넓은 아량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의 초점은 용서가 아니다.

자신을 억압한 저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손이 가만히 떨렸다는 것이다. 누가 성내어도 성냄으로 갚지 말고 악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을 따르는 성직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부처님의 경지에 근접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용서를 했다면서 손을 떠는 승려를 통해 인간성을 초극하려는 승려의 긴장과 시의 긴장을 맛보게 된다.

그의 시에는 충북 청원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고 떠나는 이들을 보살피는 스님 이야기가 나오고('어느 스님'), 유마거사의 말씀도 나오며('가지런히'), 개심사 가는 길에 만난 덤 불 속에서 수북이 빛나는 똥 무더기('미소')를 만난다.

그리고 다음 시와 같이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아름다운 사원 봄 풍경을 그리기도 한다.

봄이 되자 히말라야 산록의 야생 영양네 마리가 치리젠타 사원(寺院)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겨울 동안의 수염을 깨끗이 밀고 마당에 나와 비질하는 어린 스님들의 이마에도 작고 새파란 뿔들이 돋아 있는 것이 아닌가. 설산을 녹이고 흘러온 거울 같은 계곡의 물결 위로 이따금씩 팔뚝만한 송어가 뛰었다.

–'사원 근처'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⑬고수무침

사찰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고수는 중국에서는 '향채(香菜)'라 하여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 먹을 정도로 사랑 받는 야채입니다.

고수는 호유실 혹은 빈대풀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사찰에서만 재배하여 먹었다고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민가에서도 재배하며 중국음식이나 동남아음식에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수는 사찰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고수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인도, 태국에서는 카레나 수프에 향신료로 넣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소스를 만드는 향료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생으로 무쳐 먹는 걸 제일 좋아하며 상추쌈에 섞어 먹기도 하고 다져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서 고수장을 만들어 밥에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음식 뿐 아니라 향신료로 널리 애용
고수열매는 위장 장애·기침에 효과

고수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약초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도 고수의 씨가 복통이나 현기증 등을 치료하는데 좋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고수 씨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고대 로마 때부터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함께 넣었으며, 빻아서 그 향기를 마시면 현기증이 치료되고, 유럽에서는 강장 효과가 뛰어나다 하여 차나 수프로 만들어 환자에게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고수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처음 접하는 사람은 역겨움을 느끼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이것 없이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고수 열매를 먹으면 불로불사(不老不死)한다는 말이 있고 한방에서는 '호유실'이라고 하여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기침을 멎게 하고, 입 냄새를 없애며 상처를 치료하는데 씁니다. 잎이 푸를 때는 냄새가 나지만, 황갈색으로 익은 열매에서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납니다.

일본에서는 '고엔도로'라 하여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할 때 흔히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사람이 드문 채소이기도 합니다.



고수무침

재료 : 고수, 감자, 깨소금, 참기름, 소금

만드는 법

① 고수는 씻어서 5cm 길이로 썰어둔다.
②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곱게 채를 쳐서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잘 볶는다.
③ 익은 감자에 고수를 넣고 숨이 죽을정도만 살짝 볶은 뒤 깨소금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④ 참기름을 약간 넣어서 고루 섞은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로 인해 8월 첫째주 일요일 서울선원 선가귀감 법문은 쉽니다.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 60,000원(농협 100083-56-142307 예금주 : 위일석)
입금하시고 011-9024-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 011-9024-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생활명상서]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 다양한 명상법과 수련방법 안내 –
고목 지음
신국판 276쪽
₩10,000
(주)민족미르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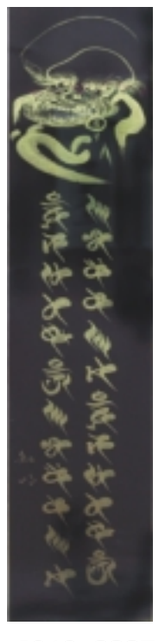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的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원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육임직지 한글판 출시
■육임의 720과전 상세히 수록
■생년월일을 몰라도 궁금한 일이 발생한 시간이나 사람을 만난시간에 해당과전만 보면 모든 사안 정단가능
■각 과전마다 필법(백법)을 해설수록
육임직지주해/세종출판사/소담주해
1권 갑자순 2권 갑술순 3권 갑신순 4권 갑오순 5권 갑진순 6권 갑인순 7권 부록
총 7권 180,000원 농협(조일흠) 815132-52-354445
H.P 017-844-7100
TEL 055)362-2799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참선 및 영어방 안내문
◆장 소 : 길상사 ◆교육기간 : 4년
◆개강일시 : 2007년9월10일
◆정 원 : 5명 교육비, 침식 무료
◆교육대상 : 40~55세 미만의 비구니스님
◆회화중심 : 초보자 가능
◆수 행 : 참선, 일상언어:영어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1리 441번지 길상사
문의 041)541-7240~1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 학인모집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10-3928-0006
051)558-8830~1

새로운 포교 나눔의 봉사
신비의 효험봉침 수강회원
위빠사나 명상, 상담과 심리요법
기초교리 예불 예절 요가
봉침<법침>요법 및 미용요법 강좌
명상봉침요법 지도포교사 수료증
*불교명상 봉침 대체의학연구협회
원효불교교양대학 유마사
마산 055)247-5652

秘 法 전 수
붓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충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움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도성사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재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점법스님 합장
033)747-6819
010-7443-3060

연화석예석재(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 567-1260
전송 031)551-1500. 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청암(靑巖)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홈페이지/동영상제작
인터넷 이곳에 가면 해결!!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법문 법회 촬영
인터넷불교TV방송
www.CBC108.TV / www.CBC108.co.kr
011-356-3427
02)837-2003

행자/학인모집
나는 이곳에 가야한다
수행을 걸쳐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여래종금강대약사사
www.yaksasa.com
031)734-3205
043)731-2261
010-9292-4828

세계최면치유연구소
부산,경남,전국 최고!!
전생체험, 빙의제거!
실습위주의 최면전수
저서 : 최면치유법
051)803-7208
www.choimyun.com

도반으로 함께할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60세 이상으로 학력이 조금 있으신분을 환영합니다
(전화벨을 일곱번이상 울려주십시오)
055)883-8846

인연(나무약사여래불)
한의학, 민간요법으로 각종질병 치료상담과 수행정진하는 비구승으로 참된 자비행을 실천하는 곳이면 사찰 및 민간요양시설 등 승속을 가리지 않고 무보시로 상주하면서 활인구제하고져 합니다
(불교의식, 사주철학 가능)
010-4561-5675

신심있는 (女)사무 종무원 및 화주보살님, 공양주보실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행자스님도 모십니다
(사미계 수료시 승가대학 입학지원)
▷경기도 안산
011-324-5103

총무보살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11-493-1121

부처님께 귀의해서 함께 기도하며 수행할 30~40대 비구니(행자)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은평구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011-9350-3216

염불(전문)스님 입니다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10-4520-6787
054)433-631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부전자리 원합니다
기도승(비구)
011-296-2685

성실한 비구입니다 기도소임을 원합니다
010-6831-0975

부전스님(비구,비구니) 법당보살, 처사, 수행행자 각 1명(50세이하) 구합니다
▷대구 팔공산 신라 천년고찰
011-9176-4403

본인은 역학 및 49재,천도재, 각종불공의식,서화 등등에 능통한 법랍 30여년 50대초반의 청정 비구로써 여법한 도량 노전이나 주지 또는 회주 직책 원합니다 비구,비구니,처사,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 모두 다 가능합니다
011-854-810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경북 안동시내
011-501-78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공양주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33)462-6969

행 자 모 집
•입산 수행하여 스님이 될 남, 여, 행자를 모집합니다.
•신심 충만한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고시생 환경 합니다.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 하실 분 5명.
•함께 기도하시며 지내실 처사님, 보살님들 연락바랍니다.
•입종하실 스님 환경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약사여래종
031)511-718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11-820-3046
054)284-6601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지승 모집!!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3개월 완성 •속성반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을 법사님을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행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사주팔자, 빙의령, 질병에 얽힌 삼각 관계를 치유합니다
1. 병명이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프신분
2. 무당굿을 해도 효과를 못보신 분
3. 우울증, 가위눌림, 정신질환, 사업실패, 가정파탄, 음주, 도벽 등등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왜 들어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님, 무속인, 전수함, 선착순 4명
031)241-3487 / 031)257-34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입종하시는분께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드립니다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문 의 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100평
- 법당 : 15평 목조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30만
- 위치 : 포항시내
- 부지 : 200평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33평
- 가액 : 6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부산시내 최고의 도량 산세좋고 계곡물 철철
- 부지: 5000평(100% 가용)
- 법당: 45평 요사채, 산신각, 기타 등
- 가액:65억

※ 부산 서부권
낙동강자락이 도량을 휘감고 김해 넓은 들판의 풍요함이 한눈에 보이는 도량.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가 뚜렷한 산세. 도심 최고의 명찰터에 회향의 기회를 드립니다.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도로변)
- 평수 : 100평(4층, 5층 각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1. 행자스님모집
2. 사물, 의식, 강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051)867-4567
011-857-1906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표충비각근교) 국도변위치 밀양시내에서 10분 대구, 부산 30분거리
- 대지: 약200평.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법당 20평(아미타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일절
- 가액:1억 9천 8백만원 (전세가능) (융자 7000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8877-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아래
- 평수 70평(전용면적 50평) 건물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시설 주차장 환경 최상이며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불사에 뜻을 가지신 스님께서 포교하시기 적절한 곳임.
큰 4거리 절 안내 표지판 설치

011-9912-9979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 진천 근교 10분이내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부지 : 550평 중 대지 300평 (국유림내 실 사용 700평 이상)
- 건축 : 요사채 40평 (요사채의 일부 임시법당 사용중)
- 법당지 토목공사 완료
- 특징 : 산세수려, 교통편리 별장지로도 적합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조정가능)

010-2333-36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300만원

017-393-1127

웰빙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논산시(대둔산 인근)
- 임야 7만여평의 청정계곡에 참나무 찜질방과 포교당을 겸한 웰빙사찰터 (팬션별장도 가능),
- 가액 : 보신 후 결정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017-405-1554
(주인직거래)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가 포교당)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6차선 도로에서 10m 떨어진 코너집
- 가액 : 5억원(융자5천5백만원포함)

※기존 사찰과 교환가능

011-753-5991
031)257-59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 770평, 법당 25평
- 요사채 2채, 방4,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877-77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새벽시장 입구. 3층 60평
- 스님방, 공양주방, 구원, 주방 시설완벽
- 삼존불,각단탱화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조절가능)

010-3007-5235
018-557-524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3억3천만원 (1억5천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도심 포교원)
- 평수: 약 40평 법당, 요사채, 주지실, 방1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즉시 입주 법회가능

010-5877-8630

도심사찰임대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 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 명상센터,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암자(급)안내

- 위치 : 보배의 진도 진도읍 염장리 래접산 영구암
- 대지:2500평,법당:약45평
- 삼존불, 탱화시설, 산신각 완비
- 요사채 약50평, 방4, 부엌
- 가액 : 2억 5천만원

061)544-0484
011-9928-0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구사마을
- 법당 60평,요사채(슬라브),
- 땅 610평, 건물 130평

010-3351-1829
011-836-18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총 60평(4층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는 절충 시설비 2천만원 시설은 최상급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함

055)338-1328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 20평
- 요사채, 공양실, 삼성각 등 총건물 5동, 전체기와, 단청
- 표교, 수행 최적위치
- 전세 : 보증금 2천만원 (양도도 가능)

018-603-1456

자비사 수양원 안내

- 법당 15평, 요사채 40평
- 산신각 4평, 화장실 2, 방7 넓은 자갈 주차장, 각종 밭 1천평
- 특징 : 3개 마을 대부분 박씨 문중 땅
- 1년 도지세 15만원 (문중사실 확인서 있음) 2천만원 을 수리 (찜질방 같은 문화시설)
- 가액 : 5천5백만원 (공주 신원사 주차장 옆)

010-2606-129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 평수 : 30평(4층 건물중 3층)
- 보증금 :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일체 1500만원

010-8034-4939
051)545-55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대지 91평, 법당 26평
- 요사 1,2층 20평(합 46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 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055)372-0123

대가람사찰
납골당 조성 터 (급) 안내

- 영천시 임고면(영천댐 인근)
- 임야 : 9만평
- 지방 2차선
- 평당 1만원(절충가능)

016-510-67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 건물 3층(50평형)
- 법당 특급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인수금은 협의 후 결정

011-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갓바위 15분거리
- 법당 일체 완비, 18평
- 삼존불, 지장보살, 탱화 모셔져 있음
- 요사채 및 공양간 50평
- 건평 106평(허가필 23평)
- 가액 : 7천 2백만원 (은행융자 2천 3백만원)

016-503-3013
054)335-3013

사찰(급)안내

복지 추모사업을 위한 "절"
(분할지불도 가능)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5천만원(융 9700만 있음)

053)471-3123
017-501-2315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 방2개,법당1,거실
- 평수 : 30평
- 가액 : 1억3천만원

※스님불사관계로 안내함

043)288-9149
011-482-914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온천 내
- 건평 : 25평 3층 (방1, 주방1)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백만원, 월13만원 시설비 : 600만원

016-441-6594

사찰(터)안내

- 구미 선산 인근 관리지역 2,000평 가액 : 2억3천만원
- 구미 도계 농림지역 7,300평 가액 : 1억원

011-513-931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82㎡(25) 복조
- 요사 : 217㎡(66) 복조
- 부지 : 891㎡(270) 복조
- 가액 : 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79㎡(24)목
- 요사 : 130㎡(462)
- 부지 : 18975㎡ (5750)
- 가액 : 20억
- 위치 : 경남
- 법당 : 99㎡(30)
- 명부전 : 660㎡(200)
- 요사 : 396㎡(120)
- 부지 : 3960㎡(1200) 외국 4950㎡(15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산사체험(템플스테이)

마음을 방하착하는 순간 더위와 고통이
저 멀리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참가방법
가족과 함께, 직장동료와 함께, 개개인 각각, 부부화합 절호의 기회

체험종목
참선, 명상, 풍류도호흡과 체조, 발우공양, 자연생태교실, 다도

⊙1박 2일
1차 - 7월 21일(토) ~ 22일(일)
2차 - 8월 4일(토) ~ 5일(일)

⊙2박 3일
1차 - 7월 27일(금) ~ 29일(일)
2차 - 8월 10일(금) ~ 12일(일)

법 륜 사 주지 법헌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3
문의 032)583-2003, 032)575-2004
010-4413-4268, 011-321-4120

해동불교 임제종

입 종 안 내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종 정 석지암
원로원장 혜 봉
종회의장 혜 성
선 원 장 지 언

■ 구비서류 : 사진5매(반명함판 4×5),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 시 : 사찰등록증, 임명장, 법사증 교부함 (스님, 유발승, 법사)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전화 061)644-7273 / 팩스 061)644-7274
핸드폰 010-2616-6454, 011-807-8428



봉사로 즐거운 방학

올 여름 방학 복지관 봉사 어때요!

방학이라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과 TV에만 빠져 있는 우리 아이. 올 여름 방학엔 자연과 더불어 뛰놀면서도 뭔가 뜻 깊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불교계 복지관이 마련한 봉사캠프를 추천해보자.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장애아동들과도 스스럼없이 뛰어놀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세대와 장애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 인증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불교계 복지관 봉사 캠프 다채…세대 · 장애의 벽 허물고 공감대 형성

복지관이 마련한 여름캠프 중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 어르신과 함께 하는 봉사캠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3세대 통합 여름자원봉사학교-TOP GOAL 人'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8월 7~9일까지 사흘간 청소년들이 어르신과 함께 급식봉사 등의 자원봉사를 체험하고, '세대교감' '소감나누기' 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 1만원.(02)739-9501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17일까지 관내 중 ·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제13차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개최한다. 1주일 단위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자원봉사학교에서는 관내 무의탁 어르신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말벗되기, 안마 ·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02)385-1351

승가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2~3일 청소년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홈스테이를 마련했다. 8월 14일에는 지역사회 환경미화를 위해 한솔마을 7단지와 분당구 탄천 일대를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다.(031)716-4215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1기 청소년 봉사단 FLY'를 조직한다. 봉사단에 참가한 학생들은 8월 31일까지 팀별로 경로식당에서의 급식 봉사,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의 원예치료 및 음악치료 보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051)417-6344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3~14일 중증장애인시설인 섬진강 사랑의집에서 중 · 고등학생들이 시설견학 및 환경정리, 입소자들과의 나들이를 체험하는 자원봉사 캠프를 마련했다.(055)231-8017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는 8월 1~3일 중학생 봉사활동 '음식으로 나누는 사랑'을 개최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노인시설을 찾아간다. 8월 8~9일에는 고등학생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점토공예 교육을 받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02)2642-1318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개최한 여름환경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어울려 조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노인복지센터.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름캠프 중 희방산 자연생태탐방 현장. 사진제공=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이처럼 방학 중 봉사활동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나 이웃과 어울림으로써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는 봉사캠프도 마련된다. 장애 · 비장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을 배우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9기 '친구야 놀자'를 개최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피자를 만들고 민속박물관도 관람하며 즐거운 일정을 보낼 계획이다.(02)989-4215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02-852-0525)은 8월 7~10일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경기도 가평 '가난한 마음의 집'에서 봉사캠프를 열고,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름통합계절학교를 개최한다. 폐품 재활용, 장애체험 물총놀이, 소백산 죽령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054)633-641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8월10일까지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여름방학교실을 열고 생활요가, 래프팅 체험, 별자리보기, 집단미술활동, 비누 만들기, 농촌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033)643-1801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복지관도 있다.

서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신나는 자원봉사학교-통하는 우리'를 개최해 8월 2일까지 분야별 봉사활동을 펼치고, 8월 3~4일에는 방과후교실 아동과 함께하는 캠프도 개최한다.(02)2613-9367

서울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단 25기를 발족해 8월 2일까지 '학교폭력! 이젠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청소년 폭력 및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및 연합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한다.(02)985-0161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8일까지 지역 청소년들이 복지관 청소, 독거 어르신 식사배달, 프로그램 보조 등을 체험하는 자원봉사 학교를 연다.(051)363-206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44. 다도(茶道)

언젠가 일본 TV 방송사에서 한국의 차 문화를 방송하기 위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내용은 한국 전통 차에 대한 것으로 첫 질문이 '한국에서 다도(茶道)는 어떤 것인가'였다. 우리는 우선 차 한 잔을 건넸다. "우리 차 한 잔 드시지요. 좀 뜨겁지요?"라고 말을 건네자 그들은 '일본의 차 맛과는 다르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한 잔의 차 맛이 다른데 어찌 다도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한 · 중 · 일 모두 다도(茶道)가 있다. 차 마시는 것을 도(道)로 발전시킨 것은 중국의 다인(茶人)들이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 전파 되면서 그 나라의 풍속에 맞게 토착화되었다. 한국은 일찍부터 차를 마시는 풍속이 있었으나 그것을 다도라 부르지는 않았다. 고승이나 문인들은 차를 마시며 시를 노래하고 세상 근심을 잊으려 했고, 맑은 정신을 추구했으니 이것이 한국의 다도가 아니겠는가. 추사 김정희도 차를 마시고 난 후의 최고의 경지를 '전다삼매(煎茶三昧)'라는 시로 남겼다.

'고요히 앉아 선경(禪境)에 드니 반나절이 지나도록 차 향기 처음처럼 피어난다. 신묘함이 일어나(妙用時) 물 흐르고 꽃이 피듯….'

차를 마시고 난 후 삼매의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차의 정신세계인 다도에 이른 것이다. 초의선사가 <동다송>에서 다도(茶道)에 대해서 말하길, 차를 딸 때는 오묘함을 다해야 하고,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물은 진수(眞水)를 얻어야 하고 차를 우릴 때는 물과 차가 서로 조화로워야 차의 진실함과 정기가 서로 어우러지니, 이와 같아야 다도가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차 한 잔을 기울이니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일고 몸이 가벼워져 이미 신선의 세계를 난다고 하였다. 초의 선사는 차를 통하여 자연과 하나가 된 세계를 경험하려 하였다. 이것이 한국의 다도(茶道)이다. 불교의 근본사상인 중도(中道)를 바탕으로 다선일미(茶禪一味) 정신을 실현하여 전통적인 선림(禪林)의 다풍(茶風)을 체득하고자 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정(中正)의 상태가 도(道)이며 이것을 다도(茶道)라고 한 것이다.

한국의 다도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원한 산과 맑은 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즐기니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요, 자유로운 기질이다. 무질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요, 자연과의 동화이다. 종교인에게 다도는 수행의 방편이고 예술인에게는 승화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생활인에게는 자기를 지키려는 참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차는 하나의 정신의 음료이며 자기 수행을 위한 매개물이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정의 상태
차는 정신의 음료이며 수행 위한 매개물



단원 김홍도(1745~?)의 <초원시명도(焦園試茗圖)>. 간송미술관 소장.

요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차를 마시는 방법도 다양해졌으니 다도 역시 좀 변화된 듯하다. 하지만 본래 다도란 일정한 형식이 없다.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한 잔의 차가 잠을 깨우고 집중력을 주었다면 이것이 도(道)요, 정성스럽게 우린 차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이것이 도(道)가 아니겠는가.

일찍부터 차가 지닌 성품을 군자와 같다고 한다. 아무리 차의 본성이 군자와 같다지만 정성이 담기지 않은 차는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좋은 차, 좋은 물, 정성스

「효사육임복변집」 신청과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편」 CD프로그램 교환 안내

안내 말씀

저 고복자 효사가 만리장성을 넘는 각오로 무려 3개월에 걸친 구성양식 수정을 거쳐 후회없이 완성한 육임활용서 완결편 "효사육임복변집" (아래 갑자일 견본파일 참조) 선주문 신청과 본 완결편에 의거한 "효사활인천역집완결편"cd프로그램 교환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본 "효사육임복변집"의 정가는 250만원 입니다.

1. 제가 쓴, 이 "효사육임복변집"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200만원**을 입금 하십시오.
2. 본 책 이전, 제가 쓴 각 육임활용서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계시는 분은 **105만원**을 입금 하십시오. 단, 200만원 이상 구입하셨던 기록이 있는 분에 한합니다.
3. 본 책과,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제가 쓴 기존 육임활용서와 교환하여 활용하실 분은 **80만원**을 입금 하십시오. 단 3백만원 이상 입금하셨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 "효사활인천역집111"CD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계시는 분 께서 본 책을 **95만원**에 신청하실 경우 금번에 업그레이드 시킨 "효사활인천역집완결편"cd프로그램을 무료로 교환, 승인해 드립니다.
5. 이번"효사활인천역집완결편"업그레이드판과 기존 "효사활인천역집111"와 의 교환만을 원하시는 분은 **100만원**을 입금하십시오.
6. 본 책 "효사육임복변집"을 이미 3개월 전 부터 선주문하신 분들께서 "효사활인천역집111"cd프로그램 까지 구입하여 활용하고 계시다면 **20만원**만 입금하십시오. 본 "효사활인천역집완결편"업그레이드판으로 교환,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특 장

본 "효사육임복변집"의 대보정된 특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도"를 최고로 보장시켰습니다.**
   가히 족집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 **"간편성"을 극도로 제고시켰습니다.**
   60갑자 각 일 치를 A4용지 크기로하고, 하루치 3장에 양면 상철(가로넓이)로 제본하여 마치 "보고서" 읽듯 방문시간과, 각 시간마다 12월별 판단계절로 나눠놓은 해당국수칸만 보아 나가면, 내방자나 전화한 사람의 구석 구석 (아래 갑자일 파일참조)을 모두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를 말씀만 하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끔 구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3. **"효과성"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60갑자 하루치씩을 6대목으로 분류한 아래 순서를 따라 보이는대로 복변할것 같으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큽니다.

   가. 제1장 제 1면에 "왜 왔는가?" 칸들을 구성하여 육임시보 10개 법칙을 적용시켜 이를 보고 미리 말하면 정확히 맞게 해놨습니다.
   나. 제1장 제 2면에 "어떤 정황인가" 칸들을 구성하여 육임내정 15개 법칙을 적용시켜 이를 보고 미리 말하면 정확히 맞게 해놨습니다. 또, 육임에 있어 관살작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구직사"칸을 독립시켜 내방자가 승진,영전,임관 사항을 물어왔을때, 즉시 이곳을 보고 말하면 정확히 맞도록 구성시켜 놓았습니다.
   다. 제2장 제 3면에 "형이상법" 칸들을 구성하여 육임형이상비법 20개 법칙을 적용시켜 이를 보고 미리 말하면 정확히 맞게 해놨습니다. 특히, 작사귀침범여부와 그 해소지침, 병귀침범여부와 그 해소지침, 부 정빌미침해여부와 그 명칭과 이유, 산소탈여부와 그 이유, 해당육친, 해 당묘지의 주산과 좌향, 해당묘지 물형, 해당묘지속 상태, 해당묘지앞 경 관, 자손침범재해와 해소지침 등등을 한눈에 보고 미리 말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놨습니다. 육임형이상법의 적중도는 백미올시다. 또, 묻는 일이 "언제 될것인가?"하는 "응기"및, "이사람의 흉재가 언제 끝날것인가?" 하는 "흉절시기"를 각일 각 해당 국수칸마다 그 시기 날자를 일일히 적시해놓아, 우리 활인사역의 만전을 기해 놨습니다. 참으로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라. 제2장 제 4면에 "사과삼전요해"를 구성하여 육임국수비전 25개 법칙을 적용시켜 이를 보고 미리 말하면 정확히 맞게 해놨습니다.
   마. 제3장 제 5면에 "연명상신,행년상신,최종판단"을 구성하여 육임길흉결해 21개 법칙을 적용시켜 이를 보고 미리 말하면 정확히 맞게 해놨습니다.
   바. 제3장 제 6면에 "내방자목적사용건별성부단정" 칸들을 구성하여 육임성부단정 23개 법칙을 적용시켜 내방자가 묻는 목적사를 해당 칸중에서 찾아 이를 보고 말하면 내방자의 현재와 당나이 때의 형편들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도록 해놨습니다.

4. **또, 각 장 해당 순서 면에 "육임간단법칙"들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하여 우리 활인천역자의 응용도와 기민성을 높였습니다.**

   가. 소육임법 : 정단 하는 해당 월과 해당 일자를 환산하여 월일 당도궁을 표시한다음, 당일 각 시간별 해당 궁마다 온 사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1장 제1면의 시보에 보조해놨고, 모망사, 또는 기도시한 및 길일 길시가 언제인지를 명시해놓아 우리 활인천역자들의 영험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 지두계획사: 내방자의 각종 계획사가 성공되는 경우를 내방 월별로 각 시간마다 표시하여 매우 간단히 그 성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 필승좌법 : 60갑자 각 순별 10일씩 달리지는 필승좌법을 매 순별 각 일 각 시간마다 표시해 놓아 중요상담이나 승부사에 적용하도록 해줄 수 있게끔 표시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들, 즉 상담이나 친견 자리도 각 순별 10일마다 여기에 표시해놓은대로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내방자 선악 분별: 내방자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보통인지를 가릴 수 있도록 매일 각 시간마다 표시해 놨습니다. 이때 선인이기는 하나 무력,피해,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악인이지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외양과 언변과는 달리 무력인인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일일히 표시해 놨습니다.

   마. 명암법칙 : 낮시간에 왔는데 해당시간이 밤시간이 될 때 그것 하나로 내방자의 목적사가 않됨을 알고, 밤시간에 와서 낮시간에 해당하면 일이 잘된다는 육임법칙을 매일 각 시간칸 마다 달아놓아 우리 복자의 편이한 판단을 보조해 놨습니다.

   사. 생극법칙 : 내방자의 해당시간이 당일 일간을 생,비,재 하면 묻는 목적사가 이루어 지고, 극,설, 공망 하면 그 목적사가 불성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일 각 시간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아. 기타 :
   1)점시에 붙는 천장을 각일 각 시간마다 12월장별로 구분, 그 칸마다 표시해놓아 우리들 판단의 정확도를 높여 놨습니다.
   2)월장가시 된 후 그변수(육합,삼합,충,형,해,파)여부를 매일 각 시간마다 12월장 칸별로 이를 일일히 적시해 한눈에 내방자의 변수변화를 유추하는데 긴요하도록 해놨습니다.
   3)각 판단순서 항목별로 부연설명한 부록이 꾸며져 있습니다. 육임요해의 핵심을 편성시켜 이미 전국 육임가 1천5백여분께 무료로 발송해 드린바 있습니다.
   4)본 책 활용도를 높여드리기 위한 설명CD가 따라갑니다. 활용방법과 그 효과성들을 화면에 담아 놓았습니다.

구성내용 (甲子일 子시, 午월장 해당 7국수 만을 제시합니다. 아래 견본 갑자일 각 12시간별 12국수별 복변 내용을 모두 보시려거든 www.taotemple.net 「공지난」에 올려진 파일을 클릭하십시오.)

1. 시보 / 2. 내정 / 3. 형이상 / 4. 사과삼전 / 5. 천지반 / 6. 성부단정



위와 같이 구성한 복변내용은 아무나 감히 흉내 낼 수 없고, 또, 흉내를 내서도 않되는, 육임에 녹아 있어야만 가능한 적시로서, 우리 활인천역자들의 복변능력과 수법의 영험능력을 몇단계 고양시키겠다는 자기계현에 의한 소명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거사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각자 맞는 조건대로 입금, 신청하십시오.

"장맛을 봐야 장맛을 알지"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각고 끝에 완결해낸 이번 본 "효사육임복변집"은 전국 현인 기사 이인 대사 여러분의 평생을 반려하는 천금서가 될 것임을 일러드립니다.

2007년 8월 1일 고복자 효사 배상

신청요령

1.할인신청마감 : 2007년 8월 16일 오후 4시까지
2.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예금주 :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예금주 : 김나형]
3.배본완료일자 : 2007년 9월 15일까지 각 순별 3차 배송
4.주소통보전화 : 02)993-8680 (담당 :정주연)

「효사육임강론」 상 · 하 교환접수

육임강론 상하 권이 교정과 보정을 거쳐 인쇄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십시오. 오는 8월 10일부터 바꿔드립니다. 교환대금은 10만원입니다.

역학문화의 선도를 위한 **육 임 나 라(주)** www.taotemple.net



대행스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처님 없는 데는 없다!

참다운 예배가 되려면….

문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단지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본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중생인 내가 완벽한 부처님께 예를 올리게 됨으로써 기독교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타력과 다를 바 없이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떠한 마음으로 예를 올려야 부처님께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으며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수행을 해 나가야 할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부처님은 높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낮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데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법당에 계신 그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이 내 법이고, 부처님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나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올릴 때 진짜로 거기다가, 한군데에다가 그냥 올리란 말입니다. 한군데에다 둥글려서 올리게 되면 전체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전체가 포함되고, 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삼 배를 올리든지 바쁘면 일 배를 올리든지 올리고는 자기한테다가 다시금 일임해서 놓고 나오시란 얘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처 없는 데가 없죠. 그게 여러분을 두고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사실은, 한마음 속으로 들면 하나도 없을 것이요 한마음 속에서 질량이 나오면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로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태초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화두요, 화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이나 고독함, 액난이나 병고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자기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서 바로 자기한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는 이 마음은 한계가 있지만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좇아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창조력입니다. 우린 정신력으로써 사대에 다 통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에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만 오신통에 관한 건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똥마려우면 똥 누고 졸리면 잠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앉아 있고 싶으면 앉아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과학이 따로 없고 진리가 따로 없고 부처님 법이 따로 없고 우리 생활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 법이 다 있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어디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장구벌레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난 그걸 탓 안 하겠다. 내 이 생각이 잘못이라면 부처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밀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가난치 않든 간에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스스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가 있는가 하면 한생각이 구덩이에 빠진 걸 건져 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리듯,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듯 이렇게 삼합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자칫 잘못 끌고 가면 구덩이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 차는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도 마음에 따라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병이 들고 또 가난해지고 망하고 이런 수가 많죠.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인 선사께서 육조 스님을 삼경에 말없이 불러서 말 없이 말을 하시면서 『금강경』을 설하셨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난 말을 똑같이는 못합니다만 지금 현실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걸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 자성이, 본래 내 속에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림살이 빼놓고 나 빼놓고 뭐가 남는가? 또 "본래자성불은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공용 공체 공식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대도 그것은 조금도 어김이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본래자성불이 둘 아니게 나투는 걸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세히 말을 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래자성불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 저 부처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 부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니 둘이 아니게 회전 즉,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맹종하고 무조건 노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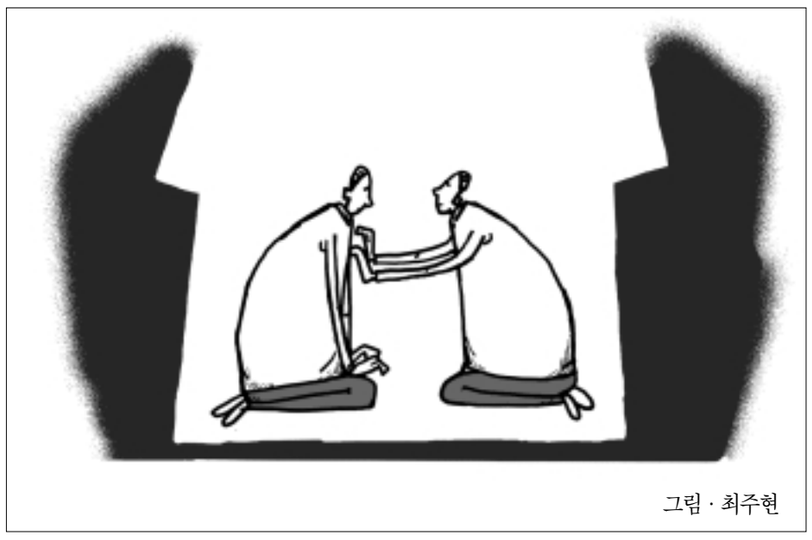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나의 중심, 중용, 중도로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에 도달해야만이 나 자신을 자신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이 세상이 둘이 아니게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둘이 아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투면서 진화된다는 그 사실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관상과 부적에 대해서

문 요 근래에 경기가 어렵고 취직이 안되다 보니 점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 보면 꼭 부처님을 모셔 놓고 부적을 해라, 사주가 어떻다 관상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던데요, 관상과 부적이 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답 예전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한 십 리 나가야 또 마을이 있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어느 스님이 지나다 보니 저 마을에 필연적으로 사태가 나서 마을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이치가 보이거든요. 참 그, 살아 있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깐 방편으로 종이에다가 써 가지고선 "이거를 붙이고 어느 날 어느 시에 피신을 해라." 이렇게 일러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스님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죠. 부적을 믿게 됐죠, 이제. 즉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마음과 마음을 한데 붙이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님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방편을 쓴 것인데, 이제는 장사가 돼 버렸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이게 무슨 효득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깨비장난이요, 귀신짓이요 모두가 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가르침을 진정코 제대로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소행입니다.

그리고 관상이라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상을 올바르게 가진다면 관상도 좋아질 거고 수상도 좋아질 거고 족상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심상 하나만 좋으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상 하나가 좋으면 모두가 이 얼굴 자체도 전부 웃게끔 돼요. 그리고 심상을 잘못 쓰면 손장난도 나쁘게 나가죠. 걸음걸이도 나쁘게, 나쁜 일 하려니깐 막 돌아가죠? 그러니깐 족상이 나쁜 거고 수상도 나쁜 거고 관상도 나쁜 거죠. 그러니깐 '심상 하나만 올바르게 생각을 잘 해낸다면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다 좋으니라. 이래서 공덕이 되느니라. 그러니 족상이니 수상이니 관상이니 볼 게 아니라 심상 하나만 진짜로 잘 보고 잘 쓴다면 이거는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이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생각해 보면 허탕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모르걸랑 아예 보질 말아요. 차라리 모르면 편안하게 마음을 둠으로써 편안한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구, 올해는 뭐가 또 언짢지는 않을까?' 하고선 가서 온통 관상도 보고 부적도 사고, 뭐 또 점도 치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좋은 게 세 가지라면 언짢은 건 일곱 가지나 돼요. 그러니 누가 언짢고 누가 언짢고 누가 좋고 이러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다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주고 나오는 건 또 좋아요. 와서까지도 이 뇌리에 아주 알쏭달쏭하게 잠재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걸 어떡합니까? 조금만 일이 안돼도 '아이구,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쿠, 이것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아주 올바로 먹고살기도 급급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느냐 이 소립니다.

애고나 질병이나 망상 같은 거, 업보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애당초부터 붙어 있던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잠재해 있는 그 관습 때문에 아이구,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 '아이구,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이래?' '에이그, 죄를 그래도 많이 졌기에 그렇겠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애고가 생기면 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즉 그 일어나는 마음이 그 업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요.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돌

☞22면으로 계속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6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6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80,000원
100% 국산콩을 선별하여 만든 원주청국장분말 1kg 20,000원
청국의 영양을 환으로 원주청국장환 1kg 25,000원
무상사 현진암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一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木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月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경문 · 한문반
◆ 학기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정원 : 15명 ◆ 강의 : 金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 학기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정원 : 15명 ◆ 강의 : 水요일 오후 2시
*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2007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신(편)입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기초과정 (1년):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상주권공(범패),사물다루는법, 작법(나비춤,바라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개 강 8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전문과정 (1년): 천도재(49재), 점안의식, 구명시식, 작법 <<매주 수요일 오후 1시~5시>>
개 강 8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징. 목탁. 요령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I.C~문막방향 3분거리)
☎033)731-7759 / 011-269-4168

진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아가는데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고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 쉴 자리가 어디 있고,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이 정맥 동맥이 똑딱똑딱 똑딱똑딱 그냥 막 뛰고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살아나온 관습들이 잠재해 있죠? 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것이 망상이다 업보다 이러질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다 이런다면, 자꾸 생각이 나와야, 요것도 나오고 조것도 나오고, 요것도 보고 조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야 목석이 아니지,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요런 생각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아, 그것더러 망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자생중생의 업식들이, 업식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생중생들이 자기가 자꾸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니 무슨 망상이니 이러니까,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 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 가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엘 다니면서 극진히 정성스럽게 하는데 '너 요놈 도둑놈! 너는 요놈아, 만날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만날 지청구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정말 도둑놈 됩니다. 네?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불교라는 이 단어는 포괄적인 불교기 때문에 일체 생명 어느 거 하나 불(佛) 아닌 게 없으며 말로 전달, 뜻으로 전달, 통신으로 통신, 마음과 마음이 전달, 이렇게 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실감이 나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이고 또는 진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름이죠, 이름만으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탄압을 받아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고 하면 그 앞에만 갖다 놓으니까,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으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써먹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거는 고쳐가면서 써야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문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참선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도 물론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영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 자신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그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저의 그림은 잘 팔리지를 않아서 힘이 듭니다.

답 어느 시골에서 떠꺼머리총각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근데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땅에다 항상 그림을 그렸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나절인데 자기가 여자 생각이 나니까 여자를 그려 놓고 그냥 집에 가서 기껏 자고선 저녁나절에 나왔더니 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내가 숯으로 그려 놨는데 이 그림에서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도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그려 놓은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림 그릴 때나 살아나갈 때도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부처님은
높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낮게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데
반드시 계십니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그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으로 치면 미술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기 시작을 해서 그저 어디고 붓과 먹, 종이만 사 가지고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산하도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다니면서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노인네 한 분이 딸을 잃고 혼자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아 참,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고 그러더랍니다.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이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바로 큰 헝겊에다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집 딸을요. 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딸과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서 그 딸을 착 놓고 보니까 아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려서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떠억 앉혀 놨단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처억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딸이 저녁이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내가 딸을 봤다든가 딸이 이렇게 잘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그림쟁이가 일러 주고는 갔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그 딸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뭐 밥도 해주고 다 하고 그냥 또 새벽녘이면 거기로 싹 들어가면 고만인 겁니다.

그럼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고 유심이라면 무심이니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그 누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린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글이요,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참나 손이 내 손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자기 주인공을 꼭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살 길이 나와요.

내 안의 능력과 업에 대해

문 불교에서는 내 안의 불성이 우주 전체의 근본과 둘이 아니기에 내 한생각에 업장을 소멸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왜 업을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영가 천도 내지는 해년마다 조상천도 의식이 많은 건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혼동할 거 없어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꼭 천도를 해야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안심이 안되는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 앞에는 잘 차려 드려야죠. 안 그래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밥 한 그릇 놓고도, 자기 먹는 밥 한 그릇 놓고도 천도를 하고도 또 남아요. 아, 사람 근기에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잘못되는 게 없고 저것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 보십시오. 사람이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뭐 뭐뭐 비싼 거 사다 놓은 거, 싼 거 사다 놓은 거 그걸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혼백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안되겠거든요. 남편이 돈 십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오만 원은 떼 놓고 오만 원 가지고 가서 장을 다 봐 왔단 말입니다. "여보, 장 봐 왔소? 어머님이 잘 잡숫던 것도 사 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기에 아들은 그런 줄로 알고 좋아서 그랬는데, 싼 거를 사다가 상을 이렇게 차려 놨거든요. 그래도 그 아들은 그것을 의심 안 하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싼 거를 그만큼 해 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만큼 차렸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에 "얘야, 네가 싼 것만 요렇게 해다 놨으니 지금 너의 할아버지도 모두 계신데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느니라." 아, 그러거든요. 그러고 꿈을 딱 깼어요. 그래서 날더러 와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어떤 꿈일까요?" 그러기에 허,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먹는 대로 조상도 알게 돼 있고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게 돼 있고 보살도 알게 돼 있고 부처님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떠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 보면 그쪽에서 그때서야 사람의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 법이 다 있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문을 열어 주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령들도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시킬 때에 여러분이 그 상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둥글려서, 마음의 원을 그려서 원으로서의 그 원심력을 생각하면서 둥글려 놓는다면 이 원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있는데 아니, 뭐 그리운 게 있겠습니까, 거기?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데 모자랄 게 뭐 있겠습니까, 원을 그려 놓으면. 그 원심으로서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면 아마 가게도 도매상이고, 또 어느 호텔이고 음식점이고 뭐, 그런 데로 아니 다니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는 자손들의 영령들 조상들은 그냥 항상 뷔페식 하는 데 가서 잡숫고 상점에 가서 항상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또 상점에 가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겁니다, 아마. 벽도 없고 봇장도 없으니까. 물도 없기 때문에 건너갈 것도 없고 오고 가고도 없이, 시간 공간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쓰세요. 무슨 요거 하나 있다, 요거 차렸다 하면 영령들도 조상들도 요거 하나 차린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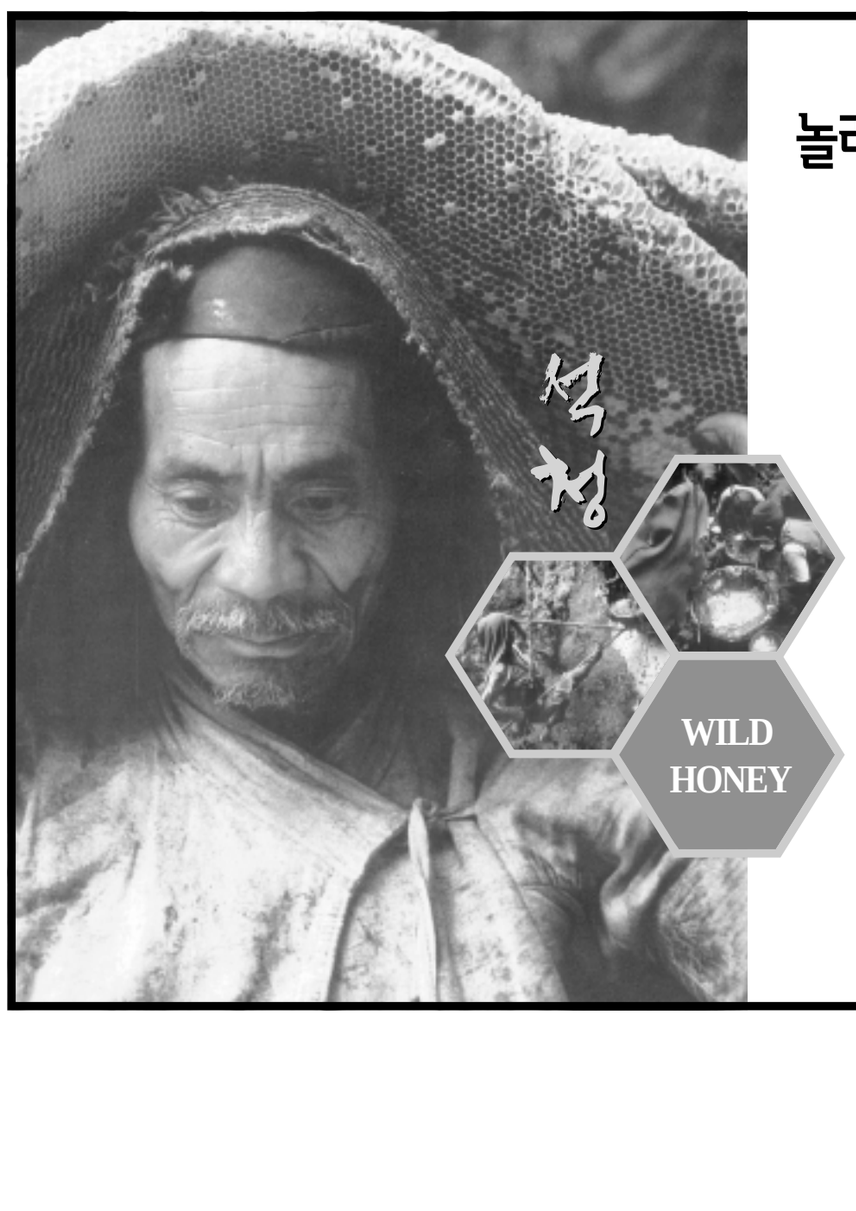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업이 있다 뭐, 이렇게 걸려 있지 마시고 생각을, 이 환상천을 훌쩍 뛰어넘고 또는 그러한 기복적인 생각에서 훌쩍 뛰어넘으세요. 과거도 없고 현실도 찰나 생활이니까 없고 미래는 안 왔으니까 없고, 아예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좋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쓸 것도 없고 씌울 것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벗겨 주려고 애를 썼지 씌워 주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린 쓰지도 말고 누구 씌워 주지도 말고 그럽시다.

저의 전생이 무엇인지요?

문 언제나 대자연의 진리를 체험하신 것을 글과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불법 공부를 10여 년 정도 하면서 지금 계곡에 빠진 게 뭐냐 하면 '그럼 내 전생이 과연 뭔가, 내 전생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실 분은 과연 이 세상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현대불교 신문을 통해서 질문을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전생이 무엇인지 일러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 지금 전생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생이 없었다면 지금 현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전생이 없다면 송장일 것이고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일 것입니다. 또 생각이 없다면 목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없는데 어떻게 현생이 있겠습니까? 바로 곧 전생이 현생입니다. 현생이 전생이고요. 그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 그대로예요. 우리가 죽을 때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것은 옷이 헐었으니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괜찮거든요. 늙고 그랬다고 해서 이 옷이 헐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 데나 앉아도 흙 묻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옷 입는 거보다 헌 옷 입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었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이 늙었다는 것이 이게 옷이 헐었다는 얘기인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떠랴 이러고요.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그 마음이 꽉 찼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누가 어디서 나와도 나와서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렇게 즐겁습니다. 즐거운 거보다도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그래서 늙어지면 허무하다고들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허무하다는 소릴 더 잘해요. 노인네들은 외려 덜해요. 그것 참, 어떻게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걸 알아보려면 나부터 먼저 알라 이겁니다.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세계화, 그리고 어린이 해외연수

외신은 세계 각국이 침략 외래종 동식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한다. 동식물의 세계화가 불러온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도 오래전부터 황소개구리, 블루길에 개망초, 돼지 풀 등 외래종 동식물로 인해 '동식물 세계화'에 대한 좋은 경험을 쌓아두고 있다.

구입이 쉬운 애완동물 탓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적 물류 흐름을 통해 동식물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거대한 흐름은 아니더라도 고대부터 세계적 물류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동식물의 세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것이기도 하다.

감자 옥수수 커피 담배 토마토 고추 면화 등, 식용 · 기호작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종으로 굳게 믿고 있는 동식물 가운데서도 언젠가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와 정착한 것들이 많다고 하지 않는가.

인류도 마찬가지다. 고대 인류의 이동경로를 보면 어떤 인종이 어디서 발생해서 그곳에 뿌리내려 지금껏 있었다는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다. 시계추가 한번 좌우로 크게 오가듯 동서 또는 서동 방향으로의 민족 대이동이 몇 번 있었다는 역사적 흔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동성 빠른 두 발 가진 인류가 세계 곳곳을 누비다, 어딘가 안전한 곳에 외래종 동식물처럼 뿌리를 내려 오래 오래 살아 온 곳이 지금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요즘 미국 유럽 등 비교적 개방된 국가 도시에 가 보면 그곳이 결코 백인들만의 국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에서 흘러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빼고도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흑인종 황인종 홍인종 등 인종은 물론 수많은 민족적 얼굴들이 한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할 것이지만 한국도 그런 인종, 민족의 섞임이 시작되고 있다.

고대부터 아주 느리게 서서히 이루어져 온 세계화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정말 급류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없다.

근대 민족 수난의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유 · 이민사는 이제 세계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을 6백여만 명에 이르게 했다. 숫적으로만 보면 한국인구의 10분의 1을 넘고, 또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한국인 없는 곳이 없다.

방학이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도 그런 세계화와 무관할 리 없다. 세계 언어화되고 있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권 국가들로 연수를 떠나고, 다음 세기 최강국으로 점쳐지는 중국으로 중국어를 배우러 가기도 한다.

영어, 기타 외국어 교육 등을 위한 방학 해외연수여행을 두고 문화 사대주의, 가치관 혼란 등을 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외연수는 세계화와는 그 흐름이 맞고, 크게 우려할 사안도 아니다. 다만 이상 열풍에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여기서 오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남는다. 진작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화 교육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지 않았던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세계화가 대세라지만 여기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반 세계화'라는 것도 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진정한 웰빙은 '세계화 아닌 지역 단위의 경제운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가속기만 달고 달리는 세계화에 '반 세계화' 운동은 지혜로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화 교육에 '반 세계화 운동'은 필수적 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불자의 눈

관람료문제 '천천히 신중하게'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전년에 비해 탐방객이 50%증가 했고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실적은 139%, 안전사고는 37% 증가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6개월. 아직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위의 수치는 '입장료'와 운영실태의 함수 관계를 대변한다. 요약하면, 입장료 폐지로 인해 탐방객은 늘었지만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도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의 개연성을 본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마땅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덜컥, 입장료만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없었던 지난 6개월의 국립공원 운영 실태가 문화재 관리에도 적용된다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문화재 관람료의 폐지는 사찰의 재산권 행사와 국가 유물의 관리, 신앙 대상으로서의 문화재가 갖는 정체성 확립, 적절한 보수와 보존 시스템 유지 등 많은 사안들과 함께 풀려야 할 문제다. 관람료 징수라는 하나의 행위만을 두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입장료처럼 관람료도 덜컥 폐지하고 사후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 사찰의 수행환경과 국가유물의 파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관람료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狂的 선교행위 앞 참담한 스님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우 민망스러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부산의 한 지하철 역 구내에서 십자가를 든 '빨간 조끼'의 남자가 탁발을 하는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 속 '빨간 조끼'의 남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스님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경전을 읽는 스님 표정은 참담함 그 자체로 읽힌다. 반면, '빨간 조끼'의 남자는 스님에게 회개 내지는 개종을 종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기독교 내부의 정서와 상관없이, 갈수록 극성스러워지는 전도 행위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서고 있는 지경이다. 경기도에서 NGO 활동을 하는 한 스님도 인근 지역 교회의 책임자로부터 개종을 요구 받았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대학원도 보내주고 집과 차를 사주는 등 생활을 책임지고 결혼도 시켜 주겠다고 회유를 해 '일갈'로 뿌리쳤다는 얘기였다. 숭산 스님의 제자 현각 스님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당신은 미국인이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신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얘기는 한국의 스님들에게도 익숙한 경험담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국민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종교간 다툼이 없어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화합을 말하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어처구니없이 광적인 선교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민족의 문화와 역사, 국민의 정신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는 종교계의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종교자유' 칼럼 22. 종교교육 정책 바로 세워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교육부 문제의식 결여…교육정책 재검토 절실

'예배의식 강제와 종교과목 필수'라는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의 만행은 오만한 기독교계와 둔감한 정부의 공동책임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곳에 그물을 쳐 놓고, '여기 온 이상 내 종교를 믿어라. 안 믿어도 예배드리고 종교교육은 받아라' 든가, 인성교육이란 핑계 아래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하는 식의 무지와 독선으로 버티고 있다. 강의석군 사건 변론에서도 대광학원측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왔고, 강요는 없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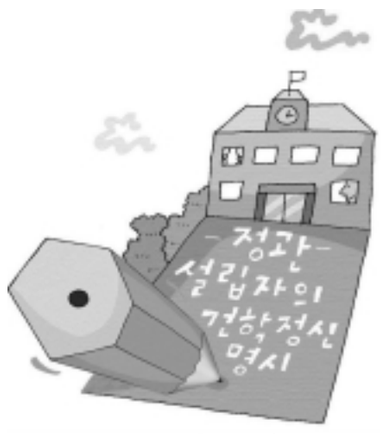
그러나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해 왔던 교육당국의 문제의식 결여와 무사안일주의, 정책 부재가 문제를 더 키워온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이 문제냐는 듯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다.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무능과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계속 장학지도는 하지만 벌칙조항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눈앞의 책임만 모면하려 한다.

이제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비록 종립학교일지라도 특정종교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는 특수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종교교육'을 허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은, 더구나 평준화 이후 종교자유권과 맞물려 분명히 거론되었어야 마땅한 국민의 교육권과 인권에 대해 선입견 없이 재론해야 한다.

교육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국가적 대사이고, 따라서 국가는 교육형성권을 가지며 세금을 내는 국민은 양질의 학습권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도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뿐이지,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얼마든지 사적 의지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 공 · 사립을 막론하고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 · 감독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정책,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교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고 바로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와 학생 개인 간의 문제라고 팔짱 끼고 비켜서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서는 더 강한 국민적 비판과 원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종교 강요 때문에 '자비와 사랑' 대신 '소외와 차별'을 맛보고, '자유와 소신' 대신 '편견과 굴종'을 익히게 되며, '배려와 관용' 보다 '증오와 폭력'을 배우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긴 안목으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림=교육부 사학법개정 홍보 리플렛.

첫째, 헌법과 국제규약 준수이다.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8조 제2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등 인간의 기본권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뼈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유 · 인권' 개념의 상식화 · 일상화야말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 발전하는 첫 걸음이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원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세계화 · 감성의 시대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흐름에 융합하는 창조적이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문화를 흉내 내거나 서구종교의 주입에만 열을 올리지 정작 우리네 전통종교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현대교육의 치명적 결함이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교양 과목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종교과목을 대체할 복수개설 여부의 확인은 물론 종교과목의 내용체계 자체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교양교육이 되도록 종교과목에서 어느 한 특정종교의 비중을 1/4을 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한국의 전통종교와 문화 부분은 오히려 1/4 수준을 넘게 할애한다든지, 타종교 부분에 한해서 그 전공자를 강사로 초빙해 강의토록 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상대적 자유권인 '종교 전파 · 교육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위법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휴지조각 취급 받는 연례적 '고시'보다, 구체적인 의무규정과 벌칙조항의 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학지도가 이루어질 때만이 국민이 신뢰하는 학교와 교육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봉축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행 사 :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일 시 : 불기 2551년(2007년) 8월 12일 오전 10시 (일요일. 음력 6월 30일)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2번지 '묵언마을'
☎ 0502-114-오! 천사. 031)672-9114. 011-8282-112. 011-8282-113
■ 오시는 길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일죽,음성나들목-묵언마을
대중교통 : 서울(30분마다)-남부터미널-동서울터미널-죽산하차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에 초대합니다.

'묵언마을'은 시인 겸 수필가인 승려 지개야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洞天 칠현산에서 홀로 5년간 창건한 사찰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를 가득 받아 가시기를 간곡히 서원합니다.



흰 소, 천도복숭아, 壽 · 福 글자…

불로장생의 유토피아

불화 속의 명장면 (30)

안양암 칠성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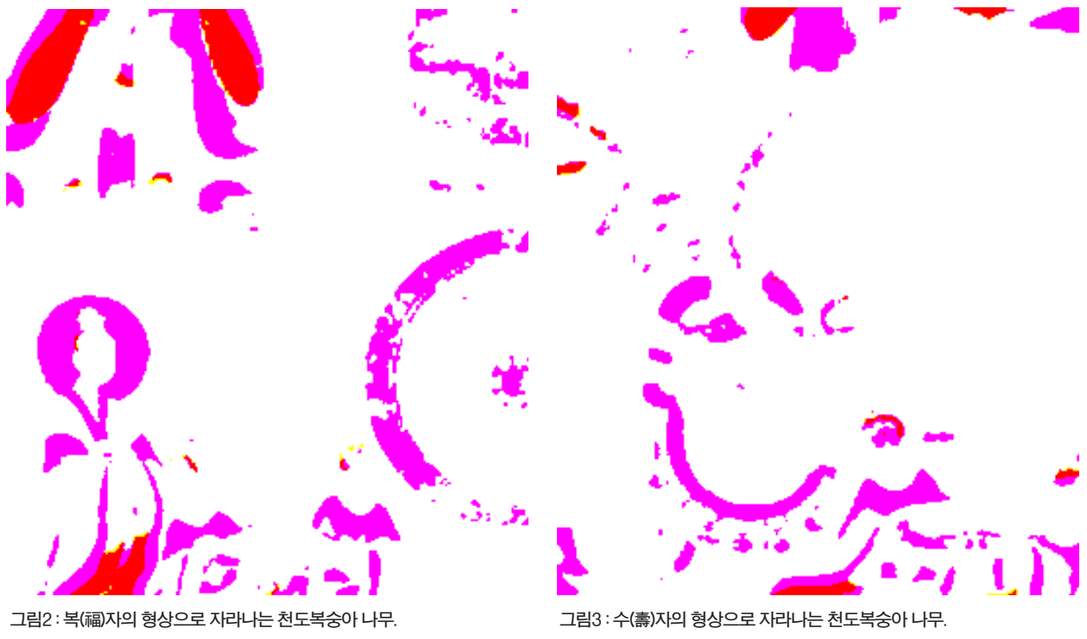


그림2 : 복(福)자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천도복숭아 나무.

그림3 : 수(壽)자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천도복숭아 나무.



그림1 : 안양암 칠성탱의 중심 부분, 치성광불과 금수레의 우차(牛車).

동대문을 지나 서울성곽을 바로 등진 곳에 안양암이 있다. 대웅전에서 명부전 · 천오백불전 · 염불당 · 영각 그리고 암벽 조각된 마애보살상까지, 그리 크지 않은 경내의 아담한 전각들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저것 안 갖춘 것이 없다. 명필의 현판과 행서체의 주련은 전각 전면과 기둥에 걸렸고, 건물 담장은 화조 영모의 그림과 글자 도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밀집한 고층 아파트와 빌딩 숲 속에 있을 법하지 않은, 보물 상자를 발견한 느낌이다. '안양암'은 이름처럼, 번잡한 세상 속의 자그마한 정토이다. 옛 정취가 남아 있는 경내에 들어서니 시간마저 유유히 흐른다. 마치 사찰이 세워진 구한말 당시 멈춘 역사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다.

경사진 언덕에 옹기종기 세워진 전각 중에 유난히 이채로운 명칭의 건물 현판이 눈에 뜨인다. '금륜전(金輪殿)'이라는 이름의 전각이다. 금륜전은 바로 칠성각 또는 칠성전의 또다른 이름이다. 보통 칠성각의 다른 명칭으로 북극전, 북극보전 등이 혼용되기는 하나(지난 연재 참고), 금륜전은 아직 본 적이 없다. 칠성전을 금륜전으로 지칭한 경우는 이곳 이외의 전각에서는 확인된 바 없으나, 이는 칠성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여진 명칭임에는 틀림없다.

금륜(金輪)이란, 금빛 광명을 발하는 수레바퀴이다. 칠성전의 주존불인 치성광불이 지니는 지물(持物)이 바로 이 금륜이다. 별 중의 우두머리인 북극성의 화신인 치성광불은, '팔폭(八幅)의 금륜(金輪)'을 가지고 천공의 모든 별들을 다스린다. 또 치성광불 몸체의 모공으로부터는 무량백천대광명의 화염이 뿜어져 나와,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고 천재지변을 다스린다고 한다.

수레바퀴에 해당하는 '륜(輪)'은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인데 불교용어로 자주 등장하는 글자이다. 바퀴라는 의미는 중심, 즉 더 나아가 회전하는 에너지의 센터,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까지 내포한다. 이 둥근 바퀴는 연꽃으로 대체되어 표현되기도 하여, 연꽃은 '우주의 꽃'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론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것을,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하여 전법륜(轉法輪)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상적인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계를 통치한다는 위대한 제왕으로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꼽히기도 한다.

고려대장경에 <불설대위덕금륜불정치성광여래소재일체재난다라니경(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이라는 긴 제목의 관련 경전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도 확인되듯, 치성광불의 또다른 이름은 '금륜불정'이다.

금륜전 안에는 매우 독특한 칠성탱이 봉안되어 있다. 치성광불은 보통 금륜을 손바닥 위에 올리나, 이 작품에서는 치성광불의 지물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치성광불이 탄 우차(牛車)의 수레바퀴가 금 수레바퀴로 크게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그림1) 칠성여래는 치성광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색의 광명 속에 탄생하고 있다. 칠성여래가 크게 묘사되는 여느 칠성탱과는 달리, 본 작품에서는 칠성여래가 치성광불의 광배 안에 작게 묘사되었고, 오히려 치성광불의 밑 부분에 무언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듯 하여 하단으로 시선이 끌린다.

치성광불 지물 우차의 금 수레바퀴로 크게 강조
수레 왕림 도교 영향…수·복 글 살아 움직이는 듯
칠성신앙이 불로장생의 민화적 상상력과 결부 돼

대개 부처님들은 수미단의 연화좌 위에 점잖게 앉아 계시곤 하는데, 치성광불은 어째서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어디로 행차하고 있는 것일까? 소의 유래는 옛 토성(土星)의 도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치성광불도(熾盛光佛圖)'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중국 당대 9세기의 작품을 보면, 치성광불이 그 주변에 오성(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거닐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토성의 옛 명칭은 진성(鎭星)인데, 이 진성은 중국 신화에서 '검은 소를 탄 노인 모습의 바라문'으로 인격화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모습의 토성은, 치성광불이 탄 보차(寶車)를 끄는 '소를 모는 바라문'으로 변형되어 '치성광불도'에 나타난다.

치성광불은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는 도교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도교의 최고신들은 대개 용이나 신령스런 동물이 끄는 깃발달린 황제의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곤 한다. 그러니까 치성광불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른 무수한 별들을 이끌고 천공에서 지상으로 왕림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신의 하늘 수레와 토성의 고대 신화적 도상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끼쳐, 이 치성광불의 승차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도상은 중국 당대에서 송대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오면 소를 모는 바라문의 모습은 없어지고 소만 남게 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인지 검은 소는 흰 소로 표현되고, 이 전통이 조선 후기에 이어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본 작품에 그려진 흰 소는 일곱 개의 커다란 금방울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정수리에는 기다란 외뿔이 나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소가 이 외뿔로 인해, 상상의 동물인 일각수(一角獸)로 변한다. 소의 바로 왼쪽으로는 연꽃잎으로 모자와 윗도리를 만들어 입은 연꽃동자가 서있다. 이 금수레의 양쪽으로는, 넓은 화분에 분재처럼 심어진 천도복숭아 나무를 동자들이 바쳐 들고 있다.



그림4 : 동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수성노인

그런데 이 고목은, 수(壽)와 복(福)의 글자 형상으로 자라고 있다. (그림2, 3) 윗가지에는 탐스러운 천도복숭아가 일곱 개씩 주렁주렁 열렸다. 화면 위쪽에는 또 다른 선녀가 천도복숭아를 광주리 가득 머리에 이고 내려온다.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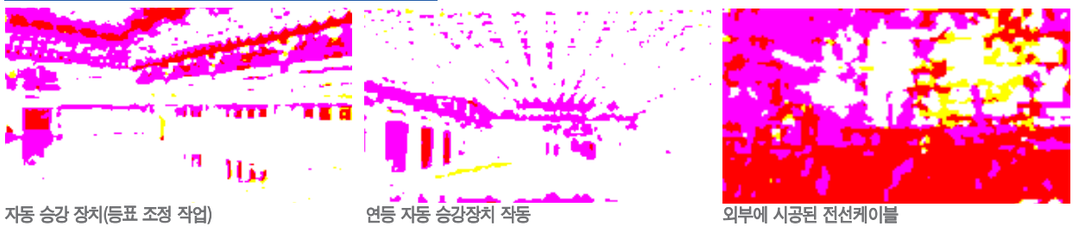
천도복숭아는 여성과 육아를 상징한다고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림 속에는 유난히 앳된 동자들과 선녀들을 많이 눈에 띈다. 하단에 그려진 칠원성군도 여린 동자의 모습이다. 그림 상단 좌우에는 수성노인(壽星老人)이, 인간의 수명이 기록된 명부를 펼쳐 보이는 동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그림4) 수성노인은 수성(壽星) 또는 남극성(南極星)의 의인화인데, 좀처럼 보기 힘든 이 별을 살아생전 한번이라도 본다면 오래도록 장수한다고 한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천도복숭아 나무 형태를 빌어 나타낸 수(壽)자와 복(福)자 형상이다. 글자가 살아 생동하고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문자, 형상으로 살아나는 문자를 그린 것이 '문자도(文字圖)' 인데, 수(壽)자와 복(福)자는 이 민화 문자도에 단골로 등장하는 두 글자이기도 하다.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길 바란다'는 뜻의 수복강녕(壽福康寧)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영원한 염원이었다. 수자와 복자를 모두 다른 형태로 백번 씩 써넣은 백수백복(百壽百福)의 병풍 역시 그러한 이유로 민간에 널리 유행하기도 했다.

'인간의 수명(壽命)을 늘려주고 화복(禍福)을 관장한다(북두칠성연명경)'는 칠성신앙이, 불로장생의 민화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이 같은 '민화풍의 칠성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흰 소의 기괴한 외뿔과 일곱 개의 금방울 · 탐스런 일곱 개의 천도복숭아 · 살아 움직이는 수(壽)와 복(福)은, 우리들을 '불로장생의 유토피아'로 이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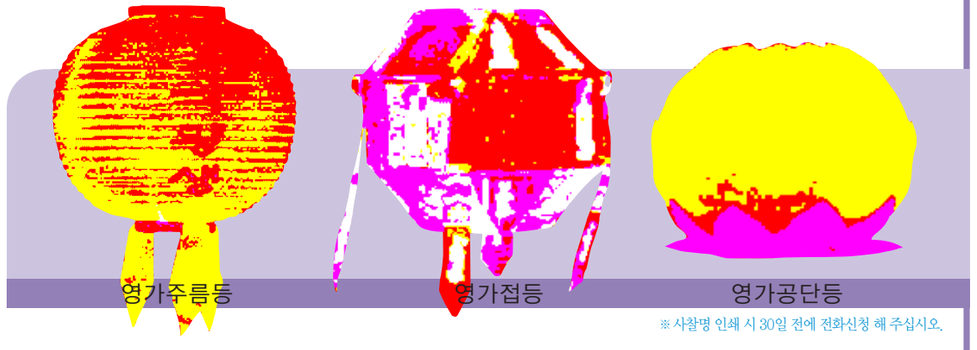
LED 인등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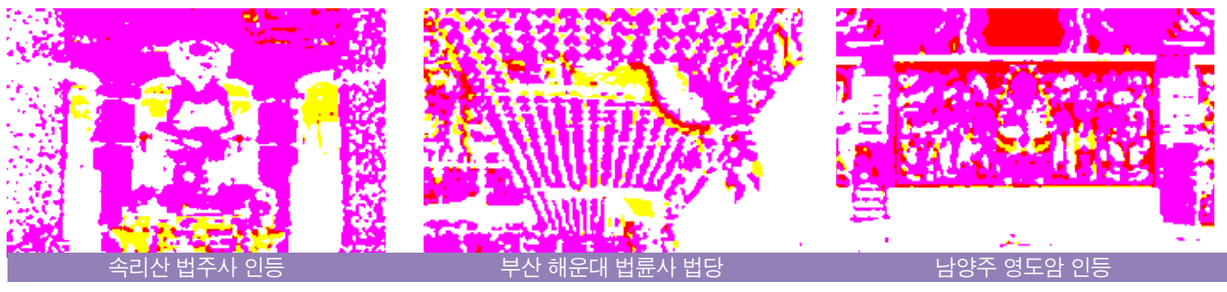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아름다운 등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속리산 법주사 인등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